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2월 28일 수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28호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2002년 새해맞이 북남공동모임≫ 북측대표단 성명

주체 91(2002)년 2월 27일 금강산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북과 남의 각계층 민간단체들은 올해의 첫 통일행사로서 금강산에서 새해맞이 공동모임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업들을 완료하였다.

이번 행사의 순조롭고도 성과적인 개최는 북남 민간급 접촉과 대화는 물론 전반적인 북남관계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였다.

그러나 미국과 그 조종을 받는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들의 책동에 의하여 행사를 하루 앞둔 시각에 행사발기단체인 ≪통일련대≫ 대표들의 행사참가가 아무런 타당한 근거도 없이 전면 ≪불허≫되는 비정상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남조선의 ≪전국련합≫, ≪민주로총≫, ≪한국로총≫, ≪민주로동당≫, 범민련 남측본부, ≪한총련≫, ≪전농≫을 비롯한 통일운동단체 대표 90 여명이 이번 금강산행상에 참가할수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예정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2002 년 새해맞이 북남공동모임≫ 이 무산되는 참을수 없는 사태가 빚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하고도 우려를 금할수 없는 엄중한 사태이다.

지금까지 북남통일행사때 남측의 몇몇 인사들의 참가가 불허된 사실들은 있었으나 이번과 같이 남조선의 모든 통일운동단체들과 그 대표들이 통일행사에 집단적으로 참가하지 못하도록 전면적으로 막아나선 례는 일찌기 없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전적으로 미국의 계획적인 파괴음모책동에 기인하고 있다.

미국은 6.15 북남공동선언 자체를 무시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단합하여 통일하는 것을 극력 반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번에 부쉬의 남조선행각 직후에 서울에 이어서 금강산에서까지 반부쉬, 반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것이 두려워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들을 부추겨 음으로 양으로 금강산통일행사에 통일운동단체대표들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행사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불순한 책동을 집요하게 감행하였다.

우리는 온 민족의 기대와 관심속에 바야흐로 그 막을 올리려던 금강산행사가 미국의 파괴책동으로 인하여 무산되게 된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미국의 반통일적죄행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규탄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을 비롯한 극우보수세력에게도 그 책임이 있으며 이들의 압력을 두려워하는 남조선의 ≪통일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다.

미국과 함께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은 6.15 공동선언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는것을 이번에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이번 금강산 공동행사가 예정대로 치루어 질수 없게 된데 대한 책임을 엄격히 추궁하고 그 죄과를 똑똑히 계산할것이다.

북남대결을 조장하고 정세를 격화시키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이 날로 엄중해 지고 있으나 6.15 공동선언을 리행하여 우리 민족끼리 기어이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7 천만 겨레의 의지는 절대로 꺾을수 없다.

이번의 금강산통일행사는 비록 실현되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남조선의 ≪민화협≫과 ≪7대종단≫이 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을 평가한다.

우리는 보다 큰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남조선의 각계층 통일운동단체들과 더욱 굳게 련대하여 6.15 공동선언관철을 위한 투쟁을 계속 힘차게 벌려 나갈것이다.

이옥순열사 1주기 추모제

≪그는 우리 노동 운동의 1세대다. 또 노동 운동을 민족사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를 통일 운동으로 옮겨 열정적으로 살았다. 그는 가히 노동 운동의 열사요, 통일 운동의 열사다.≫

원풍 모방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30년 지기 박순희씨는 이 열사를 이렇게 회상한다.

지난 23일, 마석 모란 공원에는 이옥순 열사 1주기를 맞아 노동, 통일 운동계의 많은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그가 남긴 많은 업적을 기리며 그 뜻을 따르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살아 생전, 처음에는 노동 운동에 몸담고, 온갖 어려운 노동 환경 속에서 죽음을 불사르고 제 한 몸 던졌으나 비전향 장기수 권낙기 선생과의 인연으로 통일 운동의 구심으로 살았던 이옥순 열사. 하지만 때 아닌 병마가 찾아와 이 열사를 괴롭혀, 사력을 다해 싸웠으나 끝내 운명을 달리 해야만 했다.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1 2002년 새해맞이 북남공동모임 북측대표단 성명
1 단신 – 이옥순 열사 1주기 추모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노작

2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2)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

세기와 더불어

4 3장 6절 안창호의 시국대강연 (1)

칭송

6 6월의 노래
6 조선의 사회주의 제도는 더욱 강화 발전되고 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7 한총련에 대한 미국식 테러규정은 용납될수 없다
7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2월 26일
8 민족대단결은 자주의 원칙에 기초해야한다
8 부질없는 시비질
9 아리랑에 비낀 민족의 어제와 오늘
9 희한한 최대 걸작

조선중앙통신

10 주체 91, 2월 26일
11 라남의 결사관철투사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 노동신문 사설 2월 26일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12 어버이 수령님의 영생 구호를 새롭게 제시

아리랑뉴스

13 새해맞이 민족공동모임 결국 무산
13 새해맞이 행사 무산에 대한 남측 대표단의 입장
13 남북여성통일대회를 위한 제안서
14 사상초유 공기업≪연대파업≫ 무엇을 남겼나
14 미상공회의소 점거자 석방 촉구
14 테러방지법 제정 안 된다

운동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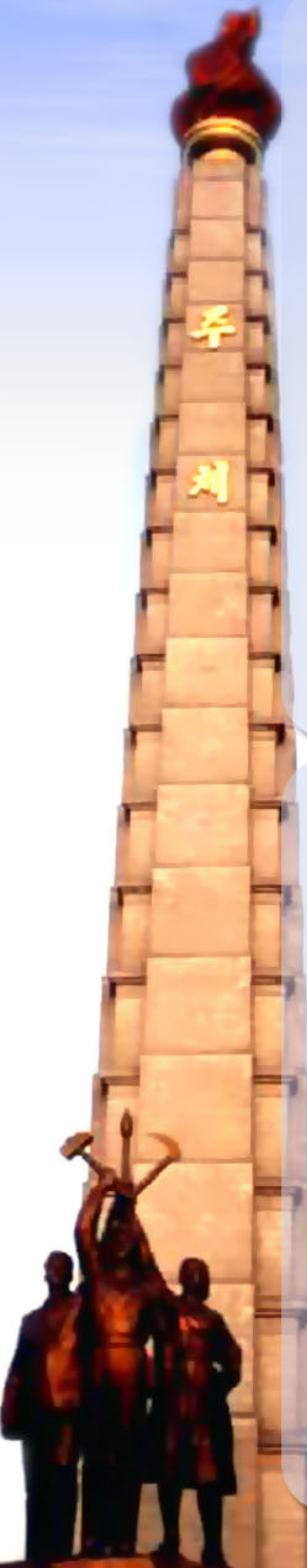
15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 (3)

조국통일3대헌장

16 폭넓은 정치협상, 7.4공동성명 (2)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2)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 주체69(1980)년 10월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합니다.

련방 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 동포 대표들로 최고민족련방회의를 구상하고 거기에서 련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 정부들을 지도하며 련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최고민족련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련방상설위원회는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전민족의 단결, 합작, 통일의 념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에 있는 사회제도와 행정 조직들, 각당, 각파, 각계 각층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며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자기 의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과 남의 지역 정부들은 련방정부의 지도 밑에 전민족의 근본 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의 국호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 통일국가의 이름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과 남의 공통한 정치리념을 반영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북과 남의 두 지역을 하나의 련방국가로 통일하는 조건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중립국가로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또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우리 나라의 전 령토와 전민족을 포괄하는 통일국가로서 전체 조선인민의 근본 리익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다음과 같은 시정방침을 내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첫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국가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주성은 독립국가의 기본표징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국가활동에서 확고한 자주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행사하여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수 있으며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으며 그 어떤 외세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쁠럭불가담국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나라의 전 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각이한 사상과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같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한 정치리념이며 각계 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신성한 권리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독재정치와 정보정치를 반대하고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옹호, 보장하는 민주주의적인 사회정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정당, 사회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북과 남에 살고 있는 인민들이 나라의 모든 지역을 자유로이 오고가며 임의의 지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의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나라 안의 두 지역과 두 제도, 여러 당파와 계급, 계층의 리익을 다같이 보장하는 공정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가 실시하는 모든 정책은 민족 대단결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민족의 단결과 합작을 강화하여 나라의 통일적인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통일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북과 남의 어떠한 단체나 개별적 인사에 대하여서도 과거를 묻지 않고 단결하여 나가며 어떤 형태의 정치적 보복이나 박해도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며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앞으로 계속 개발리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자연부원이 있으며 지난 기간 마련하여 놓은 경제토대가 있습니다. 나라가 통일된 조건에서 북과 남이 서로 협조하고 합작하여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미 마련하여 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우리 나라의 민족경제는 매우 빨리 발전할 수 있으며 우리 인민들은 모두 다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북과 남 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는 북과 남의 서로 다른 경제제도와 기업체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인정하는 기초 우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국가소유와 협동단체소유, 사적소유와 개인소유를 다같이 인정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자본가들의 소유와 기업활동에 대해서도 독점과 매판 행위를 추구하지 않고 민족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에서는 그것을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여러 계급과 계층의 리익에 맞게 모든 생산단위와 기업체들의 경제활동을 잘 조절하면서 북과 남이 지하자원과 바다자원을 비롯한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리용하며 호상협력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무역과 통상을 널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의 당국 또는 기업체들 사이에 공동회사, 공동시장 같은 것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 사이의 광범한 합작과 교류를 통하여 북과 남의 경제를 서로 련결되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자립적인 민족경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과학, 문화, 교육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훌륭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해방 후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서는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재능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자라났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여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힘과 지혜를 합친다면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은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과학기술분야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교환하도록 하여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과학기술분야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교환하도록 하여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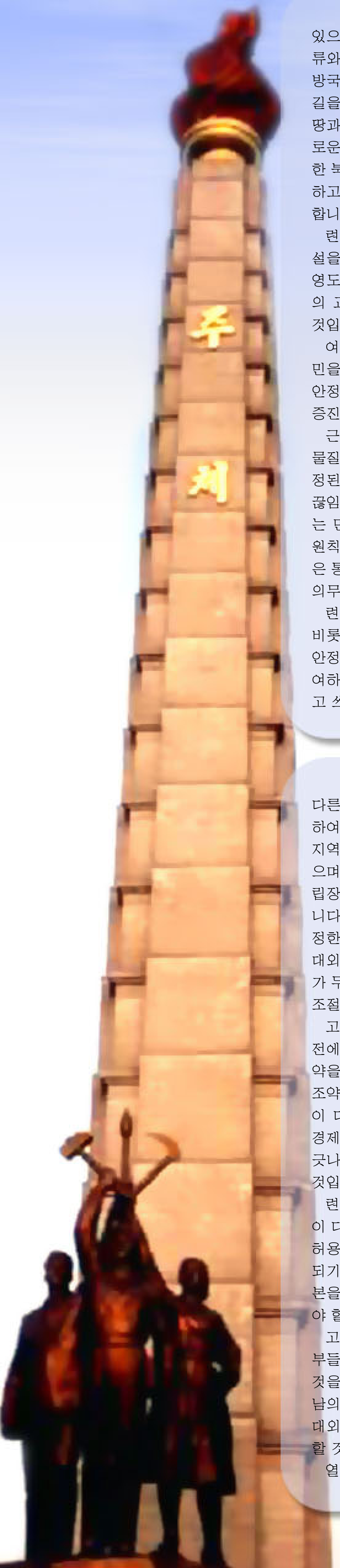
련방 국가는 북과 남의 예술인들과 체육인들 사이의 교류와 합작을 적극 장려하며 북과 남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민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관리하며 고유한 우리 말과 글을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민족문화예술을 더욱 찬란히 꽃피우고 단일 민족으로서의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계속 살려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련방정부는 인민적인 교육 제도를 발전시키고 교육사업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민족기술인재를 많이 양성하며 전체 인민의 문화지식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련결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 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리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교통과 체신은 나라의 동맥이며 신경입니다. 국토가 량단되고 교통과 체신이 끊어짐으로써 우리 민족은 가족, 친척들을 가까이 두고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소식조차 나누지 못하는 커다란 불행을 겪게 되였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다시 련결하여야 민족의 이러한 불행을 끝장낼 수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합니다.



있으며 북과 남 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와 합작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을 련결하는 철길과 자동차길을 복구하고 뱃길과 비행기길을 개설하여 땅과 바다, 하늘을 통한 북과 남 사이의 자유로운 래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북과 남의 전 지역에 걸쳐 전신, 전화가 통하고 우편물이 자유로이 오고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이 교통수단과 체신시설을 공동으로 리용할 뿐 아니라 그 관리운영도 점차 공동으로 하여 앞으로는 온 나라의 교통과 체신을 일원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켜야 합니다.

근로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 물질적 부의 창조자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그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높이는 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되어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은 통일정부가 마땅히 리행하여야 할 민족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련방국가는 모든 활동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여 주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중산층의 생활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전체 인민이 다 잘 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로동능력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고 로동조건과 휴식조건을 마련해 주며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제도와 가격정책, 공정한 세금제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체들에서 정상적으로 생산활동을 진행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대책을 세우며 특히 령세 농어민들과 소상인, 수공업자들의 경리를 국가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근로자들의 교육과 건강 증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국가적인 보장대책을 세워 모든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련합군을 조직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대치하여 있는 것은 호상간에 오해와 불신을 조성하고 불화를 가져오며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으로 됩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끝장내고 동족상쟁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하여 쌍방의 군대를 각각 10만-15만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북과 남을 갈라 놓고 있는 군사분계선을 없애고 그 일대의 모든 군사시설을 제거하며 북과 남에 있는 민간군사조직들을 해산하고 민간군사훈련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조선인민군과 남조선 ≪국군≫을 통합하여 단일한 민족련합군을 조직하여야 합니다. 민족련합군은 북과 남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통일국가의 민족군대로서 련방정부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민족련합군을 유지하며 조국을 보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담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져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 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여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우리 조선동포들이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조국으로서 마땅히 그들의 민족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지녀야 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위한 그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아홉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 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올바로 처리하며 두 지역 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이 실현되기 전에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올바로 처리하여야 통일국가 안에서 전민족적 리익과 두 지역의 리익이 다같이 적절히 보장될 수 있으며 련방국가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공정한 립장에서 친선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이 된 다음에도 북과 남이 일정한 범위에서 각각 다른 나라들과 독자적인 대외관계를 가지게 되는 조건에서 련방정부가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 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일방적으로 맺은 군사조약을 비롯하여 민족적 단합에 배치되는 모든 조약과 협정들을 폐기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 가운데서 경제관계를 비롯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에 어긋나지 않는 대외관계는 계속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이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으로 합작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나라가 통일되기 전에 남조선에 투자한 다른 나라의 자본을 다치지 말며 그 리권을 계속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의 지역 정부들이 다른 나라들과 쌍무적 관계를 가지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련방 국가는 북과 남의 대외관계를 잘 조절하여 두 지역정부가 대외활동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전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전체 조선민족을 유일적으로 대표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 전 조선민족을 대표하여 참가하며 전민족을 대표하여야 할 모든 국제적인 행사들에 유일대표단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중립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며 자주성과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공존의 원칙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린접한 나라들과의 선린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로 되어야 하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통일된 조선은 주변 나라들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침략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이며 국제적인 그 어떤 침략행위에도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우리 나라 령토에 다른 나라 군대의 주둔과 다른 나라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말며 핵무기의 생산과 반입, 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조선반도를 영원한 평화지대로, 비핵지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실행하여야 할 10대 시정방침은 전체 조선민족의 공통된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통일된 조선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이번에 새롭게 제기하는 조국통일방안과 통일국가의 10대정강은 전체 조선인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을 것이며 세계 인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당은 조국통일방안을 하루빨리 실천에 옮기고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려는 5천만 겨레의 절절한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적극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 당의 방안대로 련방공화국을 창립하고 조국통일을 실천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조국통일의 기치 아래 하나의 민족대통일전선에 굳게 뭉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는 아직도 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장애와 난관을 반드시 뚫고 나갈 것이며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기어코 성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온 민족이 단결하고 북과 남이 합작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고 조국을 통일하면 우리 나라는 5천만의 인구와 찬란한 민족문화와 위력한 민족경제를 가진 자주독립국가로서 당당한 존엄과 권위를 가지고 세계무대에 등장할 것이며 삼천리 강토 우에 더욱 부강하고 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끝)

1권 제3장

길림시절

1. 선진사상의 탐구
2. 상월선생
3.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4.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5. 단결의 시위
6. 안창호의 시국대강연
7. 3부통합
8. 차광수가 찾은 길
9. 왕청문의 교훈
10. 철창속에서

6. 안창호의 시국대강연 (1)

1927년 2월 길림의 교포사회는 전례없는 환영일색으로 들끓었다. 상해림시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독립운동의 원로 안창호선생이 베이징을 거쳐 길림에 도착하였던 것이다.

길림의 교포들은 안창호를 국가수반 못지 않게 성대히 영접하였다. 우리도 ≪거국가≫를 부르며 그를 진심으로 환영하였다. ≪거국가≫란 안창호가 외국으로 망명할 때 조국을 하직하면서 지은 노래이다. ≪간다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라는 구절로 시작되어 ≪나 간다고 설워말아 나의 사랑 한반도야≫라는 구절로 끝나는 이 ≪거국가≫는 ≪한일합병≫후 청년학생들속에서 특별히 애창되었다. 망명가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라고 하여 한때는 ≪망명자의 노래≫라고도 하였다.

조선사람들은 ≪거국가≫를 사랑하듯이 ≪거국가≫의 창작가인 안창호에 대해서도 굉장히 존경하고 숭배하였다. 안창호의 인품과 실력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대통령감≫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표현은 크게 과장된 것이 아니었다. 림시정부를 시답지 않게 보는 독립군단체의 지도자들까지도 안창호 개인에 대해서는 ≪독립운동의 선배≫라고 하면서 떠받들었다.

안창호의 금새를 잘 알고 있은 이등박문이 한때 그를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일본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조건부로 도산(안창호의 호)내각을 세워주겠다는 흥정까지 했다는 사실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평안남도의 강서땅이 지금은 천리마의 발원지로, 대안의 사업체계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낳은 고장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지만 왜정시대에는 도산 안창호와 같은 독립운동자들을 배출한 고장으로 유명하였다. 안창호가 강서태생이었기 때문에 서선지방 사람들은 대체로 그를 자기네 동향인이라고 자랑하였다.

안창호는 우리 나라가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먹히운 것은 민족의 자질이 낮은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립협회, 신민회, 청년학우회, 대한인국민총회, 흥사단과 같은 독립운동단체들도 조직하고 점진학교, 대성학교, 태극서관과 같은 교육문화기관들도 설립하였으며 ≪독립신문≫을 발간하여 민족의 계몽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독립운동의 원로들속에 남강 리승훈이라는 이름난 교육자가 있다. 리승훈이라고 하면 누구나 오산학교부터 먼저 생각하게 된다. 리승훈은 후대교육에 바친 공적으로 하여 륭희황제의 접견까지 받은 인물이다. 400년동안 서선비장의 평민들 중에서 황제를 알현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는데 리승훈이 그 전례를 깨뜨리고 처음으로 왕을 만나보았으니 그의 명망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은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고명하고 인망높은 사람으로 알려졌던 리승훈도 한때는 돈벌이를 해볼 야심을 품고 장돌뱅이가 되어 유기장사를 하였는데 나중에는 50만원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거부가 되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평양에 왔다가 교육을 통한 실력배양이 독립구국의 기초로 된다는 안창호의 연설을 듣고는 거기에 감탄하여 상투를 자르고 고향에 돌아와 교육운동을 시작하였다. 애국애족의 일념에 넘치는 안창호의 웅변술이 대무역상의 인생관에 새로운 돛을 달아준 것이다. 이것은 민족운동의 선구자로서의 안창호의 영향력과 감화력을 증시해주는 하나의 실례로 된다.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국의 신문들은 안창호의 길림도착소식을 대서특필하였다.

청년학생들은 그가 머무르고 있은 삼풍려관에 찾아가서 길림의 교포학생들을 위해 강연을 해줄것을 간청하였다. 독립운동자들도 그의 숙소에 연줄연줄 나타나 강연에 출연해달라고 초청하였다. 안창호는 그 제의를 쾌히 받아들이었다.

독립운동자들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아무날 어디에서 안창호의 시국대강연을 한다는 소문을 돌리고 상부가, 차루가, 통천가, 하남가, 북대가, 우마항가를 비롯한 시내 여러 거리들에 광고도 큼직큼직하게 써붙이었다.

그 광고를 본 길림의 교포들은 모두 들뜨고 흥분되어 서로 만나기만 하면 ≪도산선생이 오셨다지요?≫하는 말로 인사를 나누기까지 하였다.

강연전날밤에는 나도 오동진과 함께 안창호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다.

이역의 하늘밑에서 장장 17년만에 대성학교시절의 은사를 만난 송암 오동진의 감회는 참으로 류다르고 절절한 것이었다. 오동진은 대성학교 사범과에 입학할 때 안창호가 인물심사를 어떻게 하였고 입학후에는 자기를 어떻게 사랑해주었는가에 대하여 추억하였다. 나중에는 도산선생이 지은 청년학도가까지 부르며 그가 후대들의 독립정신을 계발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였는가를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회고하였다. 그는 특히 안창호의 웅변술을 두고 실감있는 회억을 많이 하였다.

오산학교

안창호의 웅변술에 대해서는 우리 아버지도 생전에 여러번 말씀하였다. 나는 만경대에 있을 때 벌써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안창호의 독립운동이 웅변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웅변을 떠나서는 그의 명성도 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안창호가 연설을 하면 려염집아낙네들까지도 그 류창한 웅변술과 리상향론에 교화되어 가락지와 비녀를 뽑아 헌금을 한다는데 그게 과연 사실일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의 연설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가? 안창호와 같은 큰 인물이 미주나 상해가 아니라 여기 길림에 노상 와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나라가 독립된 다음 나에게 대통령을 선거할 권리를 준다면 나는 그 첫번째로 안창호선생을 추대할 것이다.≫

이것은 그날밤 오동진이 나에게 한 말이다.

이 말은 안창호의 시국대강연에 대한 나의 기대와 호기심에 부채질을 해주었다.

안창호는 조양문밖에 있는 대동공장에서 의사 라석주의 추도회를 열고 겸하여 강연도 하였다. 추도회에 참가하려고 모여온 3부의 대표들과 시내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자들, 유지들, 청년학생들은 거의다 강연회장에 모이었다. 바닥자리는 다 차고 모자라 대부분의 청중은 바람벽앞에 서서 강연을 듣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날 안창호는 ≪조선민족운동의 장래≫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는데 소문처럼 연설을 잘하였다. 그의 류창한 언변은 처음부터 군중의 찬탄을 자아냈다. 안창호가 동서고금의 력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섞어가며 조선민족의 출로에 대한 주장을 력설할 때 장내에서는 요란한 박수소리가 연방 터져올랐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문제였다. 안창호는 강연에서 ≪민족인격완성론≫과 리상향론을 풀어나갔다. 그의 ≪민족인격완성론≫은 ≪자아인격혁신론≫과 ≪민족경제확립운동론≫의 두가지 내용으로 되어있었다.

리승훈

≪자아인격혁신론≫이란 우리 민족이 후진국으로서 왜놈들의 식민지가 된 것은 인격과 수양이 낮은데 원인이 있는 것만큼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일하고 서로 화목해지도록 각자가 자기인격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안창호의 주장에는 어딘가 ≪자아완성론≫에서 표현된 똘스또이의 사고방식이나 자기자신을 개조하고 단련하지 않는 한 인간은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본 간디의 견해와 비슷한데가 있었다.

당시로 말하면 세계적인 대경제공황의 징조가 생활의 여러분야에서 나타나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던 때였다. 극도로 파쑈화된 제국주의가 대두하여 인간의 자주성을 총칼과 올가미로 참혹하게 교살하고 있었다.

소부르죠아지식인들은 철갑으로 무장한 제국주의의 위력앞에서 전률하였다. 이런 시대적분위기속에서 그들이 찾아낸 정신적도피처가 바로 무저항주의였다. 무저항주의는 혁명적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이 제국주의의 공세앞에서 겁을 집어먹고 찾아가는 마지막안식처였다. 반혁명에 맞설 힘도 없고 의지도 없으니 결국은 무저항을 부르짖게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무저항주의가 개량주의로 표현되었다. 민족운동의 일부 지도자들은 3.1인민봉기후 적극적인 항쟁의 방법으로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청산하

려는 혁명적인 립장으로부터 리탈하여 교육진흥운동과 민족산업진흥운동을 민족운동의 최대의 기치로 삼고 우리 인민의 정신적 자질과 경제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민족실력양성운동을 맹렬하게 벌이였다. 민족운동의 중심지도층을 이루고 있던 근대지식인들은 토산품애용과 민족기업의 육성으로 민족을 경제적 파멸로부터 구출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내 살림은 내것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경제적인 자급자족의 길을 타개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물산장려운동을 벌이였다.

이 운동의 지도자인 조만식은 토산애용의 상징으로 한평생 무명으로 지은 조선바지저고지와 조선식두루마기를 입고 지냈다. 그는 명함장도 국산한지로 만든 것을 사용하였으며 신발도 외국것을 신지 않고 조선것을 신고 다니였다.

민족개량주의를 류포시키는데서 리광수의 ≪민족개조론≫이 많은 작용을 하였다. 이 론문을 읽으면 개량주의의 본질을 알 수 있고 그 위험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쉽사리 판단할 수 있다.

내가 ≪민족개조론≫을 읽고 제일 불쾌하게 생각한 것은 리광수가 조선민족을 렬등한 민족처럼 여기고 있은 점이였다. 나는 우리 나라가 후진국이라는 생각은 해봤지만 조선민족을 렬등한 민족이라고 여긴 적은 한번도 없었다.

조선민족은 세계최초의 철갑선과 금속활자를 창조한 문명하고 슬기로운 민족이며 동방문화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우리 조상들은 일본문화의 개척에도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외적의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 우리 민족의 강건한 자위정신은 일찌기 아세아만방에 맹위를 떨치였고 백지장처럼 깨끗한 우리 인민의 도덕은 세계의 찬탄을 자아냈다.

우리 인민의 인습이나 풍속 가운데는 물론 부족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이고 부차적인 것이지 본질적인 것은 아니였다. 그 부차적인 것을 가지고 민족성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리광수는 ≪민족개조론≫에서 마치 조선사람들이 ≪렬악한 민족성≫때문에 망한 것처럼 말하였는데 조선이 망한 것은 락후한 민족성때문이 아니라 통치배들의 부패무능때문이였다. 조선민족이 ≪렬등≫하다고 개탄하는 리광수의 론조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론조와 일맥상통하였다. 일본사람들은 입만 벌이면 우리 민족을 ≪렬등한 민족≫이라고 비방하였다. ≪렬등≫하기 때문에 일본이 ≪보호≫, ≪지도≫, ≪통제≫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민족개조론≫을 일본제국주의강점자들에게 보내는 리광수의 공개전향문이나 다름없었다. 이 전향문을 쓴 대가로 그는 지난날 독립운동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총독부코앞에서 뻐젓이 올방자를 틀고앉아 련애소설들을 써내고 있었다.

소설가로서의 리광수는 초기에 독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대중이 그를 사랑한 것은 그가 독자들의 구미에 맞는 진보적인 작품을 써왔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나라 현대소설의 개척자라고 불리울만큼 새로운 양상의 소설을 많이 써냈다. 그러나 ≪민족개조론≫으로 하여 리광수에 대한 대중의 애정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의 소설작품들에서 엿보이던 개량주의적 요소가 완전한 자기의 형체를 가지고 이 론문에 등장한 것이다. 민족운동을 개량주의의 방향으로 유도한 근대지식인들은 심지어 국채보상운동을 통하여 모은 돈으로 조선사람이 주관하는 민립대학까지 설립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총독부는 독립인재양성의 온상으로 될 수 있는 민립대학의 설립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비폭력적인 물산장려운동도 역시 일제의 저항에 부딪치였다. 조선사람이 일본이 내려먹이는 상품을 쓰지 않고 국산제만 사용하는데 대하여 총독부가 눈을 감아줄리는 만무한 것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 운동을 일화배척의 목적을 가진 반일운동으로 보고 독을 품고 방해하였다.

실력양성의 간판밑에 진행된 개량주의운동은 리념상에서는 애국애족을 표방하였으나 방법상에서는 비폭력을 전제로 하는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저항운동이였다. 총독부가 허용하는 한도에서 민족의 경제력을 육성하여 일본제국주의의 경제적 침략에 대항하려는 그들의 지향은 사실 망상이나 다름없었다. 일본이 자기를 매장할 민족산업의 발달을 용허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초보의 초보에 속하는 상식인데 기업을 창설하고 국산품을 애용하면 민족의 살길이 열린다고 생각하였으니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는가.

개량주의길로 타락한 민족운동자들은 제국주의속성을 옳게 보지 못하였거나 외면하였다. 그들이 무력항쟁으로부터 방향을 바꾸어 평화적인 문화운동으로 이행한 것은 투쟁방법상에서의 후퇴를 의미하였다. 그것은 식민주의자들과의 평화적 공존이나 타협을 전제로 하는 운동이였다. 평화적 공존이나 타협속에서는 어차피 변질현상이 생기기 마련이다. 실지로 개량주의자들가운데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후날 민족운동대렬에서 도피하든가, 전향하여 일제의 앞잡이가 되였다.

자강론의 변형인 안창호의 실력양성론(준비론이라고도 함)은 민족개량주의자들이 의거하고 있던 리론적 지탱점이였다. 그는 조선민족을 세계에서 정신적수양이 가장 낮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이 적어도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만큼 때벗이를 해야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였다.

(내일 계속)

송시

6월의 노래

6월의 노래는 격정의 노래다
그토록 지겹던 50여년의 분단동토
김정일영도자님의 햇빛간은 미소속에
싸그리 싸그리 한순간에 녹아내리고
너, 나, 남북겨레의 그 모든 가슴가슴에
울컥 더운 것이 치밀어 오르던

6월의 노래는 희망의 노래다
금수강산 이 땅의 허리를 너무도 추하게 묶어 놓은
600리 저 휴전선의 콘크리트장벽
이제금 물먹은 흙벽처럼 무너지고
북쪽 갑산고을 남쪽 빛고을 그 어데든
생각나면 오간다는 희망속에 가슴 부푼다

6월의 노래는 고마움의 노래다
이 나라의 존엄이고 빛이고 희망이신
그렇듯 명망높으신 김정일장군님
자애로운 우리집 어버이되시어
여기 남도땅 온 집집에 우리 가슴가슴에
스스럼없이 찾아와주시니

오- 6월의 노래는 맹세의 노래다
김정일장군님 친히 서명해주신 6.15남북공동선언
그 역사적인 통일불씨
이제금 그 어떤 광풍 휘몰아친데도
한목숨 던져서라도 지켜낼 의지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데
어찌 우리 가슴이 맹세로 끓지 않으랴

55년의 그 차디차던 분단
단 55시간만의 만남으로 뜨겁게 넘으시며
기대와 긴장속에 얼어 있던 7천만 그 모든 가슴에
그토록 뜨거운 환희
한순간에, 단 한순간에 안겨주시던 그 은정
참으로 역사에 없던 은정이었노니

아-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날의 잠못들던 서울 거리여
온 남도땅 굽이굽이에 차넘치던 격정
거기 대학가에 나부끼던 인공기여
한없이 밝으신 미소 너무도 황홀하던
경복궁앞 거리에 모셨던 그분의 영상이여

버스터미널, 달리는 객실안에서
호남선 열차안에서
서귀포모래톱에서
꺽꺽 숨막혀오는 격정속에 듣던
그분의 음성이여

뉘라서 그 6월이 갔다하겠나
뉘라서 그날의 더운 숨결 식어졌다고-
오호- 6월
온 겨레가 부둥켜 안고 기쁨에 겨워 흐느끼던 그 6월은
오늘도 내 가슴속에 너무도 뜨겁나니
흘러가는 세월속에 더더욱 뜨겁기만 하노니

아니, 아니다
6월은 가지 않았다
6월은 너, 나, 우리 겨레 모두의 가슴속에
통일애국의 더운 불씨되어 오늘도 힘차게 맥박치고
남북해외 단결의 열망속에 오늘도 뜨겁기만 하노니

오호- 우리 이 6월속에 산다
그날의 후더운 숨결, 그 역사적인 통일숨결로 숨쉬며
이 6월을 펼쳤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 민족사랑
그렇듯 빛나던 그분의 미소속에 우리 산다
여기 남도 땅에 울려 퍼지던 환호
통일의 그 6월속에 우리 사노니

그래서 뜨거운 6월의 노래
그래서 쉼없는 6월의 노래
그래서 아름다운 6월의 노래
그것은 21세기에 펼쳐질 우렁찬 통일행진곡이다
오- 그것은, 그것은
21세기 통일강성대국 떠올려주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드리는
역사의 송가이다

흠모

김정일주석께서 세우신 독특한 조선의 사회주의 제도는 오늘 김정일비서의 영도 밑에 더욱 강화 발전되고 있다

덴마크공동위업노동당 집행위원회 위원이며 비서인 이브 야곱슨을 단장으로 하는 이당 대표단성원들이 귀국함에 앞서 기자와 회견하였다.

그들은 우리 나라 방문인상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우리 인민이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제도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비록 길지 않은 체류기간이지만 우리 대표단 성원들은 평양과 지방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귀국의 사회제도가 진정 인민을 위한 사회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었다. 조선에서는 인민을 위한 정치가 실시되고 있으며 인민은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들을 크게 감동시켰다.

조선의 사회주의 제도는 위대한 **김정일**주석께서 세우시었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그 기치 밑에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 조선의 해방을 이룩하시었으며 미제를 쳐부시고 나라의 존엄을 수호하시었다.

김정일주석께서 세우신 독특한 조선의 사회주의 제도는 오늘 **김정일**비서의 영도 밑에 더욱 강화 발전되고 있다. **김정일**비서께서는 언제나 인민대중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으시고 당과 국가 사업전반을 현명하게 영도하고 계신다.

오늘 조선노동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라는 구호를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최근 평양에는 5만 세대의 살림집의 일떠서 인민들에게 크나큰 기쁨을 주었다. 우리는 평양산원과 여러 문화시설들을 돌아보면서도 당과 국가에서 인민들에게 돌려주는 배려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느낄 수 있었다. 참으로 조선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민적 정치는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 주었다. 우리는 특히 조선의 현실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당의 영도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체득하게 되었다.

김정일주석과 **김정일**비서의 현명한 영도는 조선의 빛나는 현실을 낳게 하였다. 그분들께서는 당을 강화하고 당의 두리에 광범한 대중을 통일 단결시키시어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아가고 계신다.

지금 일부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가 좌절되었지만 위대한 영도자들이 계시기에 조선에서는 사회주의 위업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고무로 되고 있다.

단원 올레 빈 핸둘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의 사회주의 제도하에서는 근로대중의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고 있다. 그들은 누구나 국가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직업에 대한 걱정, 치료받을 걱정, 배울 걱정을 모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기고 억압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귀국에서는 또한 인민적인 문화와 도덕 생활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다. 인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가 실시되고 있는 귀국사회의 이 모든 것은 세상에 자랑할만한 것이다.

대표단 성원들은 또한 조선노동당과 덴마크공동위업노동당 사이의 친선관계가 날을 따라 더욱 발전하고 있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굳은 연대성을 표시하였다.

한총련에 대한 테러규정 용납될수 없다

청년학생들과 함께 – 구국의 소리 주체91 2월 25일~26일

미국의 오만성과 횡포가 극도에 이르고 있다.

얼마전 주한미대사관은 지난 18일에 발생한 주한미상공회의소점거사건을 테러사건으로 보고 이에 연관된 한총련 학생들을 테러사범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다.

이를 두고 지금 우리 청년학생들과 전국민은 커다란 민족적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반세기이상 우리 국민의 눈에 비쳐진 미국의 모습은 과연 어떤것이였던가.

해방자의 탈을 쓰고 이 땅을 강점한 첫날부터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은 그대로 침략과 약탈, 파괴와 살육 그것이였다. 한반도를 동강내고 우리 민족에게 6.25의 참극을 강요한 것도, 자유와 민주를 요구하여 분기했던 광주를 피의 도시로 만든 것도 미국이였다. 그리고 민족문화, 민족전통 등 우리의 우수한 모든 것을 깡그리 밟아버리고 패륜과 패덕의 미국식 생활양식으로 사람과 사회를 오염시킨 것도 미국이였다. 길가는 사람을 군용차로 깔아죽이고 나무하는 사람을 목표물로 삼아 총으로 쏴죽이고 처녀와 유부녀, 노인할것없이 닥치는대로 겁탈하는 테러와 살인의 왕초도 다름아닌 양키침략자들이였다.

어찌 이뿐이겠는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자마자 주한미군영구주둔과 상호주의, 검증론을 떠들며 우리 민족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은 통일의 주되는 걸림돌도 미국이였다. 그것도 성차지않아 9.11테러를 구실로 무력증강책동에 열을 올리고 악의 축발언으로 새해 벽

두부터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고 있는 것도 바로 미국이다.

정녕 우리 민중의 눈에 비쳐진 미국의 모습은 세상에 둘도 없는 악마의 모습이며 미국이라는 이름은 듣기만해도 치가 떨리는 악의 대명사인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은 미국을 침략자, 약탈자, 테러와 살인의 왕초로 규정하고 반미를 가슴속에 웅축해왔고 그것은 드디어 부쉬의 방한을 계기로 폭발했다.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노동자, 농민, 지식인, 종교인 등 온 국민이 부쉬방한반대투쟁에 나섰고 심지어 정치권에서까지 이 투쟁에 합세해나섰다.

미국대사관과 주한미군기지, 주한미상공회의소, 국회와 청와대 등 이 땅의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부쉬방한반대와 대북강경정책철회, 무기강매반대, 양민학살진상규명, 주한미군철수, 침략전쟁반대를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들이 연일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총련학생들이 단행한 주한미상공회의소점거농성은 우리 백만 청년학생들의 불굴의 투쟁기개와 식민노예의 운명에서 벗어나 자주국민으로 살려는 각계 민중의 반미의지를 시위한 것으로써 지극히 의롭고 정당한 투쟁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총련 학생들의 주한미상공회의소점거농성을 테러사건으로 몰아붙이면서 관련자들을 테러사범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이 사건을 구실로 반미투쟁의 선봉장인 한총련을 테러단체로 매도해서 원천적으로 말살하며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의 반미투쟁기세를 꺽어보려는데 있다. 정말 치졸하고 생억지로 일관된 미국식 테러규정이라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당국이 미국이 요구한 관련 학생들의 인적사항 통보강요에 굴복하여 협조하려 하는데 있다. 이것은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한총련을 말살하려던 경찰당국이 이제는 미국식테러규정에 힘을 얻어 저들의 목적을 실현해보자는 사대매국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경찰당국이 제아무리 한총련에 테러의 감투를 씌워 말살하려고 해도 어림도 없다. 오히려 청년학생들의 반미투쟁은 더욱 고조될 것이며 불패의 애국대오 한총련의 백만 청년학생들은 자주민주통일의 선봉장으로 더욱 우뚝 서 있을 것이다.

미국은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속에 끓고 있는 반미감정을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국민은 미국이 제마음대로 주무르는 식민지노예가 아니며 이 땅도 역시 양키들이 제마음대로 활보하던 고요한 뒷동산이 아니다.

미국은 한총련을 테러단체로 몰아붙이는 것과 같은 더러운 폭거에 매어달릴 것이 아니라 청년학생들과 국민의 요구대로 대북강경정책을 철회하고 주한미군을 당장 철수시키며 양민학살만행을 비롯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온갖 죄행에 대해 당장 사죄하고 보상해야한다.

당국은 미국의 한총련말살책동에 맞장구를 치는 반민족적 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규정과 국가보안법을 철회하여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의 더욱 큰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방금 들으신 것이 한총련소속 대학생 김동수씨의 글 ≪한총련에 대한 미국식 테러규정은 용납될수 없다≫였는데요. 정말 들을수록 양키침략자들에 치솟는 분노를 금할수 없는데요. 9.11테러를 구실로 저들의 마음에 들지않으면 무턱대고 테러단체나 테러지원국이라는 딱지를 붙여 반테러전쟁을 감행하다 못해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적 자주권, 조국통일을 위한 의로운 투쟁을 하던 한총련까지 테러단체로 몰아가려는 미국의 파렴치한 행위를 어찌 그냥 보고만 있을수 있겠습니까. 우리 백만 청년학생들은 마땅히 더욱 과감한 반미투쟁으로 한총련에 대한 미국의 말살행위를 강하게 짓부셔야 할겁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2월 26일

김정일영도자님의 인간사랑의 정치 칭송

부산 모 병원 전공의 이진수씨가 **김정일**영도자님의 인간사랑의 정치를 높이 칭송했습니다.

그는 22일 저녁 함께 퇴근하는 동료에게 비인간적인 사회에서는 도저히 의사의 양심을 지켜나갈수 없다고 괴로운 심정을 터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양방송으로 이북 강원도 회포군에서 네명의 절망적인 화상환자가 기적적으로 소생한 사실을 들었다. 말그대로 인간사랑의 전설이다. 얼마든지 살수 있는 환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죽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수없이 목격하는 우리 의사들에게 이 꿈같은 얘기는 참으로 타격이 아닐수 없다.≫

이씨는 계속해 무한대의 민중사랑, 인간을 지니신 **김정일**영도자님의 주위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친 이북 민중들만이 이런 미담을 창조할수 있다면서 인간사랑의 참정치로 기적적인 소생의 전설을 끊임없이 꽃피워가시는 **김정일**영도자님에 대한 한없는 경모심을 토로했습니다.

육군종합훈련장 이전 요구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양평군 애향동지회와 **지키기 운동본부 등 지역주민들이 양평읍 시가지에 있는 육군종합훈련장을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종합사격장에서 매주 2, 3회 중하기와 개인하기의 사격훈련이 실시돼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소음, 진동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유탄이 마을에 날아들어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이들 단체와 주민들은 포탄소리에 불안해서 못살겠다는 내용이 찍힌 포스터를 시가지 곳곳에 붙이고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에 사격장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회창의 망발

한나라당 이회창은 23일 한반도긴장의 핵심은 북의 대량살상무기위협이니 뭐니하고 떠들었습니다.

이회창의 이같은 망언은 부쉬행정부의 대북압살정책에 가세해 나서는 용납못할 반민족적 범죄행위가 아닐수 없습니다.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직면하고 한반도정세가 전쟁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호전광 부시가 북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면서 군사적 공격을 가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하면서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회창이 엄연한 현실을 부정하고 미국당국자들이 하는 소리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것은 상전에게 잘보여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이룩해보려는 비열한 수작인 것입니다.

온 국민이 악의 화신 부쉬의 한국행각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회창일당만이 항변 한마디안혹 있다가 오히려 부쉬의 대북적대시정책을 두둔하고 지지해나선 것은 저들이야말로 매국배족의 무리임을 스스로 드러내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미상의점거, 테러규정반대

국민의 절대다수가 미상공회의소를 점거하고 부쉬반대투쟁을 벌인 한총련소속 대학생들을 미국이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며 탄압하도록 한데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여론조사단체인 ≪바른소리센터≫가 지난 24일 각계층 1030명을 대상으로 미국이 미상공회의소점거농성을 벌인 학생들을 테러리스트로 몰아 탄압하도록 사주한데 대해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5.3%가 반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로써 응답자의 51.3%는 미상공회의소점거농성은 부쉬의 전쟁행각을 반대하는 온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의로운 투쟁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가 될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23.4%는 미국이 6.25전쟁시기 수백만명에 달하는 양민을 학살한 미군의 테러행위에 대해서는 사죄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정당한 투쟁을 벌인 학생들을 테러범으로 몰아 탄압하려는 것은 적반하장격이라며 반대했고 20.6%는 우리 국민에 대한 악랄한 도전일뿐 아니라 내정간섭이라며 반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2월명절기념 영화감상회
재독일동포협력회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절에 즈음해 재독일동포협력회가 영화감상회를 진행했습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연사들은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생일을 민족적 경사로 뜻깊게 맞이하면서 그분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렸습니다.

연사들은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선군정치로 조국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시며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고 계신데 대해 높이 칭송했습니다.

민족대단결은 자주의 원칙에 기초해야한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2월 23일~25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민족대단결은 자주의 원칙에 기초해야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 겨레의 통일기운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구호 높이 전민족이 단결하여 조국을 통일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는 확고부동합니다.

민족의 대단결은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해야합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민족문제의 본질과 민족대단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성격과 목적 그리고 오늘의 정세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입니다. 사람이 자주성을 잃으면 사회적 인간으로써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 것처럼 민족도 자주성을 떠나서는 그 생존과 발전에 관해 생각할수 없습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해야 민족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고 민족의 운명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습니다.

자주성을 지니면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있고 민족적 자긍심을 갖게 되지만 자주성을 잃고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민족의 권리와 이익, 민족의 존엄이 짓밟히고 망국노의 운명밖에 차례갈 것이 없다는 건 역사의 진리이고 현실적 교훈입니다.

오늘 복잡다단한 세계정세상태와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이북이 승승장구하고 이북 민중의 존엄과 영예가 만방에 빛나고 있는 건 바로 이북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주정치의 빛나는 결실이라 할 것입니다.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도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볼때 민족자주의 원칙은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전민족대단결의 기초로 된다 하겠습니다. 외세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민족이 단결하여 투쟁하는 겁니다. 전민족대단결을 위한 온 민중의 투쟁은 바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며 민족의 자주적 역량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고 통일된 조국의 자주적 발전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투쟁입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애국애족과 매국배족, 통일노선과 분열노선을 가르는 시금석입니다.

외세의존을 추구하면서 자주요 남과 북의 화해요 단합이요 하는 것은 빈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애국과 매국이 양립될수 없는 것처럼 민족자주와 외세의존은 양립될수 없는 겁니다. 진정으로 남북사이에 화해와 민족의 단합,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외세의존의 길이 아니라 민족자주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지 1년반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 민중은 민족자주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는 것을 다시한번 가슴깊이 새겨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후 우리 민족은 자기 운명개척에서 하나의 전환기를 맞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사대와 분열의 암운이 자주와 통일의 서광으로, 친미반북의식이 반미연북의식으로, 냉전과 대결의 기류가 화해와 협력의 기류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불안을 느낀 내외의 반통일세력들이 또다시 우리 민족의 통일행군에 차단봉을 내리고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아 나서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이 전민족이 함께 가는 길이고 7천만이 하나가 되는 길이라면 민족자주의 원칙이 구현된 6.15공동선언은 이 길에서 시행착오없이 곧바로 나가게 하는 자주통일선언이자 민족대단결선언입니다.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과의 거족적 단합과 공동행동을 실현할때만이 반통일세력을 고립시키고 통일애국세력을 강화해 나갈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중에게 있어서 남북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하기 위한 전국민적 공동투쟁에 나서는 것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사활적 과제는 없다 하겠습니다.

뭉칠수록 커지고 커질수록 강해지는 것이 단결의 위력입니다. 남북공동선언의 기치밑에 하나로 뭉친 통일애국세력의 위력은 필승불패입니다. 오늘의 정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통일운동세력의 폭넓은 단합과 통이 큰 연계, 대범한 공동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일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민중 모두는 꼭 명심해야 할겁니다. 민족대단결은 어디까지나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한 단결이며 민족자주의 원칙을 떠나서 민족의 단결을 이룩할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직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민족대단결을 이룩할때만 우리 민족이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고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결정적 역량으로 될수 있습니다.

우리 민중은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배격하고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해나가야 합니다.

부질없는 시비질

오늘의 연단 - 2월 23일~25일

지금 온 겨레는 이북에서 머지않아 대성황리에 진행될 ≪아리랑≫대축제를 커다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바로 아리랑이 우리 겨레의 공통된 민족적 정서이고 그 아리랑축제를 통해 민족의 대화합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출발한 것이다. 실로 분단사상 처음으로 있게 될 평양 ≪아리랑≫축제는 민족의 대경사가 아닐수 없다.

그런데 이같은 온 겨레의 기쁨과 흥분, 경축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너스레들이 이 땅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온 겨레의 분격을 촉발시키고 있다. 못된 버러지 땅바닥에서 모로 긴다고 매문지 조선일보가 바로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지난 1월 조선일보는 이북에서 준비하고 있는 ≪아리랑≫공연을 관광상품개발이니 그 무슨 정치예술이니 하는 따위의 악에 바친 표현을 써가면서 시비질했다. 이것은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역행하는 간과할수 없는 도전행위가 아닐수 없다.

아리랑으로 말하면 우리 민족이 사는 어느 곳에서나 민족사와 함께 불리어온 민족정서가 넘치는 민족 고유의 노래이다. 우리 민족은 괴로울때도 기쁠때도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아리랑의 곡조속에 민족의 고유한 넋을 가슴깊이 간직했다. 때문에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노래로 우리 민족의 정서로 세월의 언덕을 넘어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이북이 이러한 아리랑을 주제로한 대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민족의 고유한 넋을 꽃피워 민족적 대단합을 이루려는 시종일관한 애국애족의 이념의 표출로써 민족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할 것없이 환영해야할 일인 것이다. 하기에 지금 해내외의 동포들은 환희의 기쁨속에 ≪아리랑≫축제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더욱이 우리 민족뿐이 아닌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까지도 ≪아리랑≫축제에 참석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경악하게도 유독 조선일보만이 ≪아리랑≫공연을 시비질하고 있으니 그 저의가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조선일보가 아리랑을 비방해나선 것은 바로 내외에서 급격히 그 열기가 높아가고 있는 이북의 ≪아리랑≫공연을 헐뜯음으로해서 이남 민중들이 평양축제에 가는 것을 막아보려는데 흉심에 있는 것이다. 결국 조선일보는 민족의 대단합을 가로막고 분열과 대결만을 추구하는 외세와 이 땅의 수구보수세력의 반통일논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껏 동족헐뜯기에 이골이나 갖은 모략선전과 거짓선전의 어용나팔수가 되어온 조선일보에 대해 우리 민중들은 거짓말신문, 볼맛도 없는 신문, 극악한 반공매문지, 모략궤변지로 낙인찍고 침뱉고 돌아선지 오래다.

조선일보의 악의에 찬 ≪아리랑≫공연 비방은 공연의 성공적 보장을 위해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북 청년학생들과 연예인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공연의 인기를 훼손시키고 왜곡시켜보려는 반민족적 범죄행위이다.

하기에 지금 이 땅의 통일연대를 비롯한 각계 애국단체들과 민중들은 분격을 금치 못해 조선일보의 악담을 준열히 규탄하고 있는 것이다.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고 했다. 매문지 조선일보가 아무리 ≪아리랑≫공연을 비방한다해도 민족적 대화합의 역사적 장이 펼쳐질 평양 ≪아리랑≫축제로 향한 이남 민중들의 앞길은 결코 막을수 없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대세와 민의를 똑바로 보고 자기의 반민족적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부질없는 모략선전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우리 민중은 동족비방으로 남북대결만을 몰아오려는 조선일보를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에 더욱 분기해 나설 것이다.

아리랑에 비낀 민족의 어제와 오늘

희망은 저 북녘하늘 아래 - 구국의 소리 주체91 2월 25일~26일

우리 민족은 노래를 옛적부터 사랑했어요. 그래서 남달리 노래가 많은 나라죠. 돌이켜보면 반만년의 민족사에는 유명무명의 노래가 많았습니다.

민요 아리랑도 그중의 대표적인 가요인데요. 전설에서 비롯된 아리랑은 눈물로 엮어진 슬픈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민요 아리랑은 이북에서는 오늘 기쁨과 행복을 담은 노래로 강성대국을 불러오고 통일을 불러오는 사랑의 노래로 널리 불리워지고 있어요.

오는 4월말부터 6월말까지 평양의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에서 7천만 겨레와 세인들의 관심과 경탄속에 벌어질 희한한 최대의 걸작으로 선보이게 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바로 그런 심오한 사상예술과 내용을 담고 펼쳐지게 됩니다.

그럼 이 시간 첫순서로 ≪아리랑에 비낀 민족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정원씨 모시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아시다시피 요즘 평양에서는 4월말부터 6월말까지 진행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우리 민중과 해외동포들은 물론 세인들까지도 ≪아리랑≫에 대한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민족적 색채가 짙은 아리랑을 떠올릴때면 아리랑에 비낀 민족의 어제가 생각나고 또 내일을 그려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에 관해 얘기좀 나눴으면 하는데요. 어떠세요. 반만년의 이 나라 역사의 갈피갈피에 깃든 유명무명의 노래가 많았는데요, 민요 아리랑도 그중의 하나가 아닙니까.

윤정원 : 그렇죠. 민족의 노래 아리랑 조선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조선민족이 사는 곳이면 어디서나 울리는 노래가 바로 아리랑이죠. 지금 사람들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대해 그처럼 흥분해 하는 것은 이제 머지않아 펼치게 될 그 거창하고 황홀한 화폭때문만은 아니죠. 아리랑에 비낀 민족의 역사, 다시 말해서 노래가 어제는 무엇을 말해주고 오늘은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강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자기 동포가 정든 산천을 뒤에 남기고 살길 찾아 타향만리를 떠날때 눈물 머금으며 불렀던 비애의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피눈물로 얼룩진 세월의 흐름에 부평초마냥 떠돌다 이 노래 부르며 두만강 건너 고향산천을 하직한 사람이 그 얼마고 이역땅의 한끝에 묻히면서도 넋이라도 조국에 돌아오길 소원한 사람은 또 그 얼마였습니까.

사회자 : 나라잃고 피눈물을 뿌리던 운명의 수난자들 속에서 누구보다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고 조국을 그리워한 우리 겨레였죠.

윤정원 : 그렇죠. 눈감으면 못견디게 안겨오는 유년시절 뛰놀던 버들강천 시냇가, 어머니 손수 담그던 구수한 **, 처마아래 드리워진 빨간 고추자루며 또 온 집안이 둘러앉아 맵게 먹던 시원한 동치미. 몸은 비록 이역만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 겨레의 가슴에는 애틋한 향수와 조국애의 감흥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속으로 조용히 아리랑 노래를 불러보노라면 이북의 다부작 극영화 ≪민족과 운명≫에서 나오는 4부 작가편의 장면이 떠오르네요.

윤정원 : 나라잃은 설움에 울며 가냘픈 붓으로나마 민족의 얼을 지켜보려고 몸부림 치는 시인 이찬씨는 붓을 들어 내나라를 노래하자고 해도 노래할 제 나라를 잃고 온 심혈을 다 쏟아 꽃피우려해도 꽃피울 민족의 봄이 없었기에 붓대를 꺾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시인의 모습은 그대로 강도 일제에게 무참히 짓밟혔던 그 세월 우리 민족의 모습이 아니였습니까.

사회자 : 그래서 해마다 오는 봄도 눈물을 자아내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고 부르짖던 이 나라의 시인들이였잖아요.

윤정원 : 사람들은 영화를 통해서 시인 이찬이 망국의 설움에 타는 가슴을 한잔 술로 달래며 부르는 아리랑을 부르면서 오랜 옛날 이별의 눈물속에 태어난 아리랑을 옛적의 눈물보다 더 진한 피어린 망국노의 눈물속에 부르지 않으면 안됐던 그 세월의 곡절많은 민족의 운명을 실감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래나마 민족의 소중한 재산이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결사적으로 몸부림쳤건만 그게 어디 될뻔한 일이였어요. 아리랑은 이처럼 한 시인의 삶에도 고뇌의 흔적을 남긴 것처럼 우리 민족의 근대사를 가슴 아프게 느껴온 민족가요입니다.

사회자 : 원한과 울분속에 민족가요들을 창작해서 눈물속에 부르던 망국의 그 세월은 영영 가셔지지 않았습니까.

윤정원 :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 눈물의 아리랑으로밖에는 불리울수가 없죠. 옛노래 아리랑이 눈물속에서가 아니라 민족의 자긍심을 안고 기쁨과 행복속에 불리우고 있는 곳은 바로 이북이예요. 가지고 싶다고해서 누구나 가질수 있는 것이 민족의 자긍심이 아니잖아요. 기쁨을 담아 행복을 담아 노래부르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그것을 부를수 있는 것이 민족의 노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북땅에서 지난날 눈물속에 불리우던 아리랑이 민족의 존엄과 영예, 기쁨과 행복을 싣고 희한한 걸작품 ≪아리랑≫과 같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대서사시적 화폭이 태어나게 된건 오늘 민족의 어버이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예요. 애국애족의 화신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활짝 꽃펴난 이북은 사회주의낙원이기에 눈물의 아리랑이 오늘은 행복의 아리랑으로 뜨겁게 불리워지고 있는 겁니다. 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태어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두고 우리 민중, 해외동포들이 벌써부터 그처럼 흥분하고 기뻐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사회자 : 정말 그래요. 바다 위에 두둥실 떠오르는 아침해 마냥 눈부시게 안겨올 신비경의 화폭, 인류문명의 새로운 경이를 이루며 환희롭게 펼쳐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무대를 세계는 바야흐로 접하게 될겁니다. 그것을 통해 세인들은 우리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롭고 용감하며 정서가 풍부한 민족인가를 그리고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빛나는 전통을 똑똑히 보게 될겁니다.

윤정원 : 정말이예요. 평양의 아리랑공연을 못보면 일생 한이 될겁니다.

사회자 : 좋은 얘기 정말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희한한 최대 걸작

희망은 저 북녘하늘 아래 - 구국의 소리 주체91 2월 25일~26일

지금 이북에서는 7천만 겨레의 민족의 넋을 불러일으키고 세인들의 흥분을 자아내게 하는 인류문예사상의 희한한 걸작인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준비로 온 나라가 명절분위기처럼 흥성거리고 있다는 평양의 뉴스가 매일 전파를 타고 날아오는데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이북에만 있는 특색있는 종목이라 하겠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를 둘러봐도 이북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과 같이 체육과 예술을 독특하게 배합한 그런 특기한 작품은 없죠. 이거야말로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창조한 새로운 형식의 걸작이라 해야할겁니다.

한나라, 한민족의 예술의 높이는 그 나라, 그 민족의 정치와 경제, 사상과 도덕의 높이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지난 세기에 이북은 새로운 오페라창조로 20세기 문예부흥의 조국으로 세상에 널리 이름 떨쳤죠.

이북은 예술에서뿐 아니라 집단체조에서도 세계적으로 제일입니다. 주체89(2000)년 10월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조선노동당창당 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은 그때 평양을 방문했던 이남의 각계층 대표들은 물론 우리 이남 민중들, 세계인들 속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외국의 한 신문이 평했듯이 ≪환상예술의 창작기지≫라고 하는 이북의 집단체조창작들은 역사가 깊고 관록이 깊죠. 광복직후에 이북의 집단체조는 벌써 창조와 건설의 천재이신 **김일성**주석님과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여사의 따뜻하고 세심한 보살핌의 지도에 의해 풍부한 경험을 쌓으며 끊임없이 발전해왔습니다.

이북의 집단제조는 짧은 기간에 ≪천리마 조선≫, ≪조선의 노래≫ 등 수많은 걸작들을 창조해 세계를 경탄시켰습니다.

훌륭한 문예전통과 많은 세계적 걸작을 가지고 있는 이북에서 이제 오는 4월말부터 우리 겨레와 세계앞에 선보이게 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그 내용과 규모, 형식에서 종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대걸작인데요. 새 세기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 황홀한 무대를 봐야한다는 겁니다. 못보면 일생 한이 된다고 해요. 아리랑을 보지 않고서는 인류가 21세기에 도달한 새로운 문명의 세계를 맛보았다고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오늘 다른 민족의 풍습과 전통, 정서를 잘알고 그를 통해 서로의 화목과 단합, 평화를 마련해가고자 하는 건 인류공동의 지향입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단군민족의 고유한 감정과 정서, 아름다운 풍습과 문화전통은 물론 민족의 지나온 역사와 자취를 생동하게 그려보여 사람들을 어제와 오늘을 돌이켜보게 하고 내일의 희망을 심어주게 된다고 합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영화의 화면처럼 흘러가는 변화무쌍한 배경대의 신비로운 조화, 민족적 색채가 짙으면서도 현대감이 강한 것으로해서 가슴을 마냥 설레이게 하는 음악과 우아하고 세련된 무용, 황홀하게 무대를 장식하는 특대형 영사화면들과 레이다조명효과 등 펼쳐지는 모든 장면들이 관람자들에게 ≪내가 과연 꿈속의 백화 만발한 동산에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고 해요.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게 낫다는 속담 그대로 못보면 한이 될 희한한 대걸작 ≪아리랑≫을 구경하려 너도나도앞을 다투어 달립시다. 한번 보면 늙은이는 젊음을, 젊은이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포부를 갖게 된다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황홀한 무대가 펼쳐질 평양의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이 무엇보다도 우리 민중과 해외동포들을 어서 오라 손저어 부르고 있습니다. 민족사에 또하나의 특기할 장을 아로새길 ≪아리랑≫ 대축제, 민족의 대잔치에 모두다 참가해야 할줄 믿습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2월 26일

김정일총비서는 자주정치의 위대한 수령

조선을 방문한 일본교직원주체사상연구회 련락협의회 회장 세이노 가즈히꼬는 자주정치의 위대한 거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여 조선은 사회주의보루로 빛나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세계정치사는 수많은 명인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위대한 **김정일**동지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신 위인은 알지 못하고 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탁월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그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의 힘에 의하여 굳건히 담보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정치적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애국과 번영의 길이고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라고 하시면서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하시였다.

조선을 여러차례 방문한 나는 **김정일**동지께서 집필하신 고전적로작들을 학습하고 각계층 인민들과 만나 이야기도 나누는 과정에 그이께서 지니신 천리혜안의 예지와 숭고한 풍모에 매혹되였고 주체사상신봉자로 되였다.

오늘 조선에서는 당과 군대, 인민이 일심단결되여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수 없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가 불패의 보루로 다져 졌다.

조선에서 일어 나고 있는 모든 경이적인 성과는 **김정일**동지의 자주정치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나는 오늘 온 세상에 소리높이 웨치고 싶다.

자주정치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여 조선은 영원히 승리와 영광만을 떨칠것이다.

로작출판

로므니아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고전적로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를 11일 로므니아 꼬뻬르떼쓰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주체86(1997)년 6월 19일에 발표된 이 로작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이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으로 되는 근거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가 밝혀 져 있다.

리회창은 ≪악의 축≫론의 나팔수

로동신문

매국노 리회창이 며칠전 조선반도긴장완화의 핵심은 그 무슨 ≪북의 대량살상무기위협 해소≫라고 하면서 주제넘게도 북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떠벌였다.그는 남조선과 미국의 ≪굳건한 공조≫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수작도 늘어 놓았다.

≪로동신문≫ 26일부는 이것이야말로 ≪악의 축≫론을 부르짖으며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려는 미제호전광들의 전쟁넉두리를 그대로 받아 외운것이라고 단죄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부쉬는 얼마전 일본과 남조선에 대한 행각시에 우리 공화국을 겨냥하여 대량살상무기로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정권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등의 호전적폭언을 다시금 줴쳤다.그런데 명색이 야당총재인 리회창이 미제의 강도적인 북침론리를 옹호하고 지어 우리에게 ≪문제해결≫을 요구해 나선것은 뻔뻔스럽기 그지없다.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하는 우리를 터무니없이 걸고 들면서 미제의 북침전쟁론에 박수를 쳐준 리회창의 언동은 온 민족의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자아낼뿐이다.

리회창이 상전의 ≪악의 축≫론을 그대로 되받아 외운 리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권력야심가인 리회창은 전쟁열에 들뜬 미제상전에게 아부하고 그의 비위를 맞추는 대가로 다음기 ≪대통령≫자리를 따내 보려고 미제의 ≪악의 축≫론의 나팔수로 발벗고 나선것이다.

조선민족은 미제의 개질을 하는 리회창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며 그가 저지른 죄악의 대가를 천백배로 치르게 할것이다.

로동단체 파업결의

서울의 방송보도들에 의하면 ≪민주로총≫과 ≪한국로총≫이 공기업의 민영화반대 등을 요구하여 파업을 벌리기로 하였다.

≪민주로총≫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재계의 주장을 대부분 반영한 ≪로동법≫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26일로 예정된 파업에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남조선 전 지역의 140여개 사업장에서 10만여명이 참가할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로총≫도 이날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국이 철도를 비롯한 기간산업을 민영화하려 하면서 로동계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만약 민영화가 강행된다면 총 파업으로 맞설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한편 현대자동차로조는 21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립시국회≫에서의 ≪로동법≫개정안 통과를 막고 생존권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26일부터 파업을 시작할것이라고 밝혔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대한 설명회, 일본 도꾜에서 진행

오는 4월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의 5월 1일경기장에서 막을 올리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대한 설명회가 27일 일본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일조관광교류추진쎈터 상임리사 도가사 후미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관광총국 황봉혁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국가관광총국대표단이 참가하였다.

또한 일본의 신문, 통신, 방송기자들과 려행사 관계자들, 일본주재 외국 특파기자들, 총련의 기자들이 참가하였다.

설명회에서는 먼저 도가사 후미오가 인사를 하였다.

그는 지금 일본 인민들속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대한 참관을 희망하는 신청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아리랑≫공연을 참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황봉혁단장이 조선의 관광사업과 ≪아리랑≫공연의 내용과 준비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민요≪아리랑≫은 조선민족뿐만아니라 세계인민들에게도 잘 알려 진 노래라고 하면서 이번에 최고걸작으로 창작완성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제목을 ≪아리랑≫으로 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일본관광객들이 찾아 오면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편의를 보장해줄것이라고 말하였다.

설명회에서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을 수록한 록화물과 ≪아리랑≫공연을 소개하는 록화물이 상영되였다.

이어 질의응답이 있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대한 설명회는 앞으로 오사까와 후꾸오까에서도 진행되게 된다.

라남의 결사관철투사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로동신문 사설 주체91, 2월 26일

지금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당의 전투적호소 따라 뜻 깊은 올해의 명절들을 경제강국건설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총 돌격전을 힘차게 다그치고 있다. 이 거세찬 진군속에서 라남의 결사관철투사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따라 배우기 위한 사업이 활기 있게 벌어 지고 있다. 당보에 련이어 실린 라남의 선군시대 전형들의 투쟁위훈에 대한 기사들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라남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따라 배우기 위한 지상실효연단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현실은 라남의 결사관철투사들의 숭고한 모범이 전체 인민의 심장을 틀어 잡고 있으며 그들을 따라 배우는것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고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라남의 봉화를 새 세기 혁명적진군의 봉화로 높이 들고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긍정적모범을 적극 내세우고 그것을 온 사회에 일반화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 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사상교양방침이다.

라남의 결사관철투사들은 새 세기, 선군시대의 전형이다.선군시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인민군대의 사상과 도덕, 투쟁기풍을 닮아 가는 시대이다.말이나 구호로써가 아니라 사생결단의 각오로 당이 준 과업을 무조건 끝까지 해내는 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 패배주의를 불 사르며 그 어떤 목표도 자기의 힘과 투쟁으로 기어이 돌파하는 창조적기질, 난관을 두려워 하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과업도 배심 든든히 해제끼는 불굴의 투쟁정신과 뜨거운 혁명적동지애 등 라남로동계급이 지닌 투쟁정신과 기풍은 오늘의 시대정신인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은 경지에서 구현하고 있다.라남의 결사관철투사들속에는 선군시대의 당일군의 전형도 있고 행정일군과 초급일군의 본보기도 있으며 과학자, 기술자들이 따라 배워야 할 훌륭한 귀감도 있다.기업소의 모든 성원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심어 주신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투쟁한것으로 하여 라남로동계급은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의 창조자로 될수 있었다.위대한 선군시대, 강성대국건설시대의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불굴의 투쟁정신을 체현한것으로 하여 오늘 우리 당은 라남의 결사관철투사들을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따라 배워야 할 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우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 따라 강성대국건설의 전환기를 열어 나가는 력사적시기에 라남로동계급과 같은 불굴의 투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자랑으로, 기쁨으로 된다.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당의 의도와 구상을 결사관철해 나가는 시대의 전형들이 끊임없이 배출되기에 이 땅우에서는 세상을 들었다 놓는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몰아 치고 강성대국의 미래가 앞당겨 지고 있다.지금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라남로동계급의 모습에서 당과 수령을 받드는 순결한 량심과 의리, 불 타는 조국애의 높은 세계를 보고 있다.

라남의 결사관철투사들과 같은 충신, 애국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것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우리 나라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념원대로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시기 위하여 ≪고난의 행군≫의 시련의 시기에나 오늘에나 불면불휴의 사색과 로고를 바쳐 가시는분이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혁명적군인정신을 온 사회에 파급시켜 강계정신, 성강의 봉화를 지펴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는 우리 인민들속에서 불가능을 모르고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는 혁명적기질이 높이 발휘되게 한 근본원천이였다.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위인상과 현명한 령도는 천만사람들의 심장을 한없이 격동시키고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 강성대국건설시대의 영웅들이 자라나게 하였다.

시대의 전형, 영웅들을 키워 내세우고 그들을 따라 배우도록 이끌어 주는 우리 당의 령도에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견결한 자주정신과 창조의 기질을 지닌 선군시대의 참다운 혁명가, 고상한 혁명적의리와 량심을 지닌 아름다운 인간으로 키우려는 숭고한 사랑이 깃들어 있다.우리는 당의 의도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라남의 결사관철투사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따라 배우는 사업을 계속 힘 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

라남의 결사관철투사들을 따라 배우는것은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은 조국건설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창조와 변혁의 전성기를 펼치는 전당, 전 인민적인 대진군이다.몇몇 사람들의 혁신이나 어느 한 부문, 단위에서의 성과만으로써는 강성대국건설의 웅대한 목표가 실현될수 없다.누구나 다 혁신자가 되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강성대국건설의 북소리가 높이 울려 나와야 한다.라남의 결사관철투사들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적극 따라 배우는것을 전 사회적인 사업으로 힘 있게 벌려 나갈 때 온 나라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되고 강성대국건설에서는 일대 비약이 일어 나게 될것이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라남의 결사관철투사들의 정신세계를 따라 배우는것은 위대한 선군시대, 강성대국건설시대의 혁명가의 풍모를 갖추기 위한 보람찬 사업으로 된다.

오늘의 선군시대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새형의 인간,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대부대가 자라나는 벅찬 시대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준엄한 ≪고난의 행군≫의 시련을 이겨 내고 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진군길을 다그쳐 나가는 과정에 우리 인민은 령도자와 뜻도 마음도 운명도 하나가 되는 순결의 동지로 자라나고 주체강국의 인민으로서의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게 되였다.우리 인민들은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신심드높이 미래를 건설해 나가는 배짱과 의지를 체질화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을 창조하고 있다.라남로동계급은 선군시대의 이 거창한 진군의 앞장에 선 시대의 전형들이다.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라남의 결사관철투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적극 따라 배울 때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실적으로 받들고 새 세기 강성대국건설위업에 삶의 뚜렷한 흔적을 남기는 선군시대의 참다운 전위투사가 될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라남의 결사관철투사들을 따라 배우는것이 자신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사회주의애국주의화를 더욱 다그치며 강성대국건설에서 **김일성**민족, 주체조선의 영웅적기상을 온 세상에 떨치는 영예롭고도 보람찬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이 사업에 한결같이 떨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위대한 장군님을 높은 사업실적으로 받들겠다는 라남의 결사관철투사들의 투철한 립장과 자세를 따라 배워야 한다.

라남의 결사관철투사들의 투쟁정신에서 기본은 말과 구호로써가 아니라 실적으로 당과 수령을 받들어 나가려는 투철한 각오와 의지이다.우리는 오늘의 실적은 사생결단의 투쟁속에서 이룩된다는것을 실천적모범으로 보여 준 라남로동계급의 투쟁위훈을 자기 사업의 거울로 삼고 투쟁해 나가야 한다.조건이 어려울수록 더욱 분발하는 견인불발의 의지와 투쟁력, 준엄한 시기일수록 높은 사업실적으로 당과 수령을 받들어야 한다는 라남로동계급의 투철한 신념을 배워야 한다.위대한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실현해 나가는 우리들의 심장속에는 당이 준 과업실현에 한목숨 서슴없이 내대려는 충성의 피, 열정의 피가 세차게 끓어야 한다.

강성대국건설에서 조선사람의 영웅적기상을 떨치려는 라남의 결사관철투사들의 혁명적자존심과 애국적헌신성을 따라 배우는것이 중요하다. 강성대국건설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 막고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제도, 우리의 위업을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에게 다시한번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 주고 주체조선의 존엄을 떨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다.

라남로동계급이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 지혜로 만들어 내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은것은 이 세상에 조선사람이 해내지 못할 일,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이 있었기때문이다.**김일성**민족제일주의 기치높이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쳐 나가는 모든 전투장마다에는 패배주의를 추호도 모르고 계속 높은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이런 불굴의 혁명정신이 힘 있게 나래쳐야 한다. 우리는 남보다 더 높이, 더 빨리 내달리려는 라남의 공격정신을 적극 따라 배워야 한다. 라남로동계급처럼 부닥친 난관을 극복할 방도를 스스로 찾아 낼줄 아는 창조적열정과 기백을 지녀야 한다.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 나 기어이 목표를 점령하는 완강한 의지, 끝장을 볼 때까지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해 나가는 혁명적 일본새의 소유자가 되여야 한다.

모든 문제를 변화된 환경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보고 대하고 풀어 나가는 혁신적인 안목과 사업기풍을 따라 배워야 한다. 라남의 결사관철투사들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혁신적인 안목과 사업기풍을 지닌 시대의 전형들이다.

우리는 발전하는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사고관점과 틀, 재래식방법을 대담하게 깨버리고 실리가 철저히 보장되는 방법들을 찾아 쥐여야 한다.무슨 일을 하여도 조국의 백년, 천년미래를 내다보며 전망성 있게 설계하고 통이 크게 내밀어야 한다. 라남의 결사관철투사들은 한결같이 실력가들이며 불 타는 학습열을 지닌 독학가들이다. 라남의 기적적인 성과는 꾸준하고 피 타는 노력으로 쌓은 높은 실력이 가져다 준 창조물이다.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라남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기술자들처럼 자신의 실력을 높이는 문제를 사활적인 요구로 내세워야 한다.정보기술을 비롯한 현대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이악하게 노력하여야 한다.하나를 배워도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을 개선해 나가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쓸모 있는 지식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라남로동계급이 발휘한 혁명적동지애의 미풍을 적극 본 받아야 한다.

혁명적동지애는 우리 일심단결의 초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우리는 라남로동계급처럼 자기 조직, 자기 집단을 령도자를 받드는 한길에서 뜻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순결한 대오로 만들어야 한다.동지를 위해서라면 피와 살도,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숭고한 희생성을 지녀야 한다.좋은 일에는 남을 먼저 내세우고 어렵고 힘든 일은 자기가 도맡아 나서는 고결한 헌신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라남의 결사관철투사들을 따라 배우는 사업을 전 사회적, 전 군중적인 사업으로 힘 있게 벌려야 한다.라남의 결사관철투사들은 지도일군으로부터 초급일군,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광범한 근로자들모두에게 있어서 훌륭한 본보기로 된다.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라남의 결사관철투사들을 따라 배우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오늘 라남의 결사관철투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 배우는 사업을 힘 있게 벌리는것은 각급 당조직들이 틀어 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정치적사업으로 된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라남의 로동계급이 지닌 불굴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깊이 심어 주기 위한 사업을 자기 단위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실속 있게 진행하여야 한다.라남의 투쟁정신과 기풍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되고 높이 발휘되도록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 들고 내밀어야 한다.당보지상실효연단과 같은 여러가지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 계기들을 통하여 라남의 결사관철투사들을 본 받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오분열도식이 아니라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이 사업을 밀고 나가야 한다.

라남의 결사관철투사들의 투쟁정신을 따라 배우는 사업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참된 충신, 새 세기 강성대국건설자의 자질과 풍모를 갖추기 위한 더없이 보람찬 사업이다.

모두다 라남의 결사관철투사들을 따라 배우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현해 나가는 선군시대 결사관철의 투사로 억세게 준비해 나가자.

어버이 수령님의 영생 구호를 새롭게 제시

≪특강≫ 역사에 길이 빛날 선군 영장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 제4회
학사 리종욱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2월 26일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수령영생위업 실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써 어버이 수령님의 영생 구호를 새롭게 제시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편리상 두가지 체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령영생구호를 새롭게 제시하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공화국 북반부에 이르는 곳마다에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탑을 건립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그럼 먼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령영생 구호를 당의 기본구호로 새롭게 제시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의 기본구호는 인민대중에게 투쟁목표와 행동강령을 가르쳐주고 용기와 신심을 안겨주는 힘있는 기치로 됩니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시기, 매단계마다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한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구호들을 제시하시고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승리에도 영도해 왔습니다. 몇가지 실례를 들면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 이런 구호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나아가야 할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 보다 큰 위훈으로 불러일으키는 당의 전투적 기치로 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실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시고 주체83(1994)년 7월, 당의 기본구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를 제시하셨습니다. 이 혁명적 구호에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기치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와 투철한 혁명적 신념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의 최고뇌수로서 민족의 태양으로서 영생하고 계십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민족의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고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셨습니다. 일찍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신 그 때로부터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영도따라 나아갈 때 자기 운명을 빛나게 개척할 수 있고 어떤 난관도 뚫고 승리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고 싸워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수령님의 영도 밑에 혁명의 앞길을 새롭게 개척한 때로부터 오래도록 시련에 찬 투쟁의 길을 걸어오면서 심장 깊이 체득한 것입니다. 조선의 혁명가들은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린 그때로부터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셔야 험난한 혁명의 앞길이 개척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온갖 시련을 헤치면서 투쟁과 승리의 길을 걸어왔고 이 나날에 수령님께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억세게 투쟁하였습니다. 이러한 혁명투쟁의 길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백전백승의 상징으로, 영원한 태양으로 심장 깊이 간직되게 되였습니다.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변함 없이 꽃피워 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은 더욱 확고부동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처럼 자기 수령에 대한 도덕의리심이 높고 사상정신세계가 고상한 우리 인민을 믿고 인민을 영도하여 역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령영생 위업의 새 역사를 창조하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 라는 수령영생 구호를 새롭게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수령영생 구호에 담겨진 숭고한 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영생 구호에는 우선 인류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절세의 위신이신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한 인민들의 철석같은 신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령을 높이 받들어 모시는 사상감정은 인간적 매혹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인간적 매혹은 그 위대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해서 이루어집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주체의 시대를 펼쳐주시고 두 차례의 혁명전쟁과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 모범을 창조하시였습니다. 인류해방투쟁사에는 남다른 풍모와 자질을 지니고 커다란 업적을 쌓은 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께서와 같이 그처럼 걸출한 위인은 동서고금, 그 어느 역사에도 없었습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어버이 수령님께서 서거하신데 대해서 그토록 비통해하면서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을 빛내여 나갈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념과 의지를 담고있는 것으로 해서 수령영생구호는 인민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 나가도록 고무추동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수령영생구호에는 또한, 어버이 수령님과 인민들 사이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혈연적 연계가 구현돼 있습니다. 수령을 영원히 잊지 못해 하는 인민들의 고상한 정신은 중요하게 수령과의 혈연적 연계에 그 원천을 두고 있습니다. 수령과 인민은 뜻을 같이하고 운명을 같이하는 동지 관계인 동시에 정치적 생명을 주고 보살펴 주는 어버이와 자식들 사이의 혈연적 관계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찍이 이민위천을 자신의 지론으로,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행 열차를 타시고 혁명의 천만리 길을 헤쳐 오시였으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온갖 심혈을 바치시였습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자기들의 운명의 수호자로, 자애로운 어버이로 굳게 믿고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따르면서 수령님께 충성을 다해왔던 것입니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모든 것을 다하신 어버이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수령님을 어버이로 믿고 진심으로 받들어 모신 인민들의 끝없는 충성이 하나로 결합돼서 우리 수령님과 인민들 사이에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혼연일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인민들은 어버이 수령님께서 비록 우리 곁은 떠나가시였으나 수령님을 변함 없이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마땅한 도리로, 숭고한 미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수령영생 구호에는 바로 이러한 우리 수령님과 인민들 사이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혈연적 연계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어버이 수령님의 영생구호와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에 정중히 건립된 영생탑들은 수령영생위업실현에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업적을 길이 전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수령영생 구호에는 또한 우리 인민들이 마음의 기둥을 더욱 튼튼히 세우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려는 철석의 의지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혁명하는 인민들이 마음의 기둥을 튼튼히 세우는 것은 혁명위업의 종국적 완성을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음의 기둥이 있어야 인민들은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혁명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들에게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곧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라는 마음의 기둥이 심장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상과 영도, 덕망에서 경애하는 수령님과 꼭 같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심으로 해서 우리 인민은 어버이 수령님을 잃은 커다란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장군님의 영도 따라 사회주의 위업을 힘있게 다그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수령영생 구호는 우리 인민들에게 마음의 기둥을 튼튼히 세워줌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탁월한 영도자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도록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어버이 수령님의 영생구호는 그가 담고있는 숭고한 뜻과 과학성과 혁명성, 정당성으로 해서 날이 갈수록 커다란 견인력을 가지고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의 둘째 체계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에 어버이 수령님의 영생탑을 건립하도록 하신데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에도 수령님을 못잊어 하며 영원히 수령님을 모시려는 우리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헤아리시여 공화국 북반부에 이르는 곳마다에 수령님의 영생구호를 아로새긴 탑들을 건립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는 이야기할 수 없고 대표적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평양시 금성거리 입구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글발을 아로새긴 영생탑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립하도록 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5(1996)년 7월 초순 어느날, 금성거리 입구에 어버이 수령님의 영생 구호를 새긴 탑을 만들어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금성거리에 세우는 영생탑은 부근의 지대환경에 잘 어울리게 무게있고 웅장하게 영구적인 탑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그 후에도 탑 건설장을 찾으시고 탑의 높이를 어버이 수령님의 혁명생애를 상징해서 82미터로 할데 대해서와, 탑신에 붙일 돌 조각문제, 그리고 탑신 왼쪽 날개를 조형 예술적으로 잘 처리할데 대한 문제, 탑신 위에 대원수별을 장식할데 대한 문제들을 비롯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영생탑 건설에 깃든 경애하는 장군님의 끝없는 노고와 세심한 지도에 대해서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에 의해서 영생탑은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에 훌륭히 건립되어 우리 시대의 대기념비로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강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어버이 수령님의 영생구호와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에 정중히 건립된 영생탑들은 수령영생위업실현에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업적을 길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연호와 태양절을 제정하도록 하시고 위대한 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도록 하신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새해맞이 민족공동모임 결국 무산

새해맞이 민족공동모임이 당국의 방북불허조치로 인해 결국 무산되었다. 27일 낮 12시 40분경 행사 남측 대표단은 남측 참가단이 기다리고 있는 온정각에 도착해 행사가 무산되었음을 밝혔다. 같은 날 남북 양측 대표단은 성명을 발표해 행사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작년 5.1절 남북노동자대회 이래 남북 민간이 합의한 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 무산 경과와 의미를 정리해 본다.

이번 새해맞이 민족공동모임은 원래 2월 19-21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남측의 요청으로 날짜가 변경되어 26-28일에 진행하기로 합의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선발대가 22일 금강산에 도착하여 실무 준비를 거의 끝낸 상황에서 당국이 25일 통일연대 소속 인사 46명의 방북을 불허하여 행사에 먹구름을 드리운 것. 통일연대측은 행사 공동준비위원장을 포함한 다수 대표단에 대한 방북불허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행사 불참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연대 소속 인사 99명이 방북을 포기한 상태에서 남측 대표단 208명이 26일 금강산으로 출발하였다. 종단과 민화협 대표단 220명은 출발성명을 통해 ≪우리는 깊은 불신의 눈에 가리워 화해와 평화의 새희망을 보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에 엄중하게 항의한다.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7천만 겨레에 통일염원을 가득 안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실무대표단에 따르면 당초 양측 준비위는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되 27일 행사 진행 직전에 공동으로 ≪엄중항의≫를 표시할 예정이었다. 선발대의 일원인 조성우 민화협 집행위원장은 ≪이북측이 통일연대의 방북 불허조치에 대해 지금까지의 남북 교류협력의 성과를 날려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내일 행사를 진행하기 직전 남북공동으로 ≪엄중항의≫를 표시하는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새해맞이 공동모임행사 실무협상대표가 27일 오후 참가자들에게 행사가 무산됐음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남북공동항의≫의 합의를 남측 준비위가 번복하면서 행사 진행에 다시 차질이 생겼다. 남측 준비위 관계자는 ≪종단 측에서 북에 와서 남북이 공동으로 정부에 항의하는 모양은 좋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해, 남측 대표단에서는 공동항의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에 남측은 3명의 본 대회 대표연설자 중 청년대표의 연설 내용에 남한 정부의 방북불허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하는 내용을 담자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 결국 결국 행사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를 넘겨 진행된 남북실무단 회담에서 행사 무산을 결정하고 남북 대표단은 각각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북측대표단은 성명에서 ≪이번과 같이 남조선의 모든 통일운동단체들과 그 대표들이 통일행사에 집단적으로 참가하지 못하도록 전면적으로 막아나선 례는 일찌기 없었다≫며 미국이 ≪서울에 이어서 금강산에서까지 반부쉬, 반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것이 두려워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들을 부추겨≫ 행사 자체를 파괴하려는 책동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극우보수세력에게도 그 책임이 있으며 이들의 압력을 두려워하는 남조선의 ≪통일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성명에서는 아울러 ≪남조선의 ≪민화협≫과 ≪7대종단≫이 이 행사의 성공적개최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을 평가한다≫며 ≪보다 큰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남조선의 각계층 통일운동단체들과 더욱 굳게 련대하여 6.15 공동선언관철을 위한 투쟁을 계속 힘차게 벌려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남측대표단은 성명을 통해 ≪남측 정부의 대규모 방북금지 조처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단결의 큰길에 함께 해야 한다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당국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였다. 동시에 행사 무산을 결정한 북측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시하였다.

이번 사태에 대해 통일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행사 불참결정은 민간통일운동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차후 남북민간교류가 부당한 간섭 없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원칙적이고도 올바른 판단이었으며, 남북화해와 민족대단결을 향한 강력한 의지의 발현이었다≫고 밝히고 ≪행사를 함께 준비했던 주체중 일부가 부당한 정치적 탄압을 받아 남북민간교류의 정당성자체가 훼손≫되어 행사 성사 여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민화협과 7대종단이 금강산으로 출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성명은 민화협과 7대종단이 출발성명에서 당국에 강력하게 항의한 것을 높이 평가했으며, 행사 성사를 위한 민화협과 7대종단의 노력이 애국적 의지의 표현임을 평가하였다. ≪이번 행사 무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계획적인 민족대단결 방해 책동에 인한 것≫이라고 밝히고 미국과 수구반동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을 준열하게 규탄하였다. 동시에 성명은 ≪김대중 정부의 6.15공동선언 실현에 대한 더 이상의 후퇴와 동요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신영철 기자
6.15주간 편집부

새해맞이공동행사 무산에 대한 남측 대표단의 입장

2002새해맞이남북공동모임 참가자 일동 2002년 2월 27일

27일부터 28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2002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가 결과적으로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과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행사가 일시적 정체상태에 있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 국민 여러분의 믿음을 결과적으로 져버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선 우리는 남측정부의 대규모 방북 금지 조처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남측 정부의 대규모 방북금지 조처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단결의 큰길에 함께 해야 한다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통일연대 대표단의 불참을 이유로 이번 행사의 무산을 결정한 북측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측의 조처는 6.15공동선언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민간통일운동의 노력과 결단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통일의 과정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민간 통일운동의 헌신과 창의력이 없으면 그 통일은 온전한 통일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행사의 무산은 민간 통일운동의 자발성과 창의력을 저해하는 남과 북의 온갖 요소들이 그대로 현실임을 깨닫고 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행사 무산으로 빚어진 이 실망스런 현실을 딛고 다시 새 출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간 통일운동이 결국은 통일과정의 한 축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임을 우리의 노력을 통해 보여줄 것입니다. 민간 통일운동의 변함없는 노력에 대해 국민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남북여성통일대회 제안서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참여 여성단체 일동 (2002. 2. 27)

≪2002 새해맞이 공동모임≫에 참여한 남측의 여성단체들은 이번 모임이 무산된 데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지속적인 여성교류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제안한다.

1. 남북여성들은 2001년 8월 21일 오후1시 고려호텔에서 가진 남북여성계 대표의 실무회담을 통해서 남북여성통일대회(이하 여성대회)를 가지는 데 합의하였다.

이후 북측이 민화협으로 보낸 팩스를 통해 7.4남북공동선언 30주년 기념일을 선택하여 ≪남북여성통일대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2002 새해맞이공동모임≫에 참여한 남측여성대표들은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하였다.

2. 여성대회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된 대로 연단회와 문화행사를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여성대회 주제는 ≪평화와 여성≫으로 제안한다.

2)장소는 1안 서울, 2안 평양, 3안 판문점, 4안 금강산을 제안하나, 북측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한다.

3)문화행사 세부내용은 평화노래부르기, 평화시 낭송, 무용, 남북참가자들이 공동 참여하는 민속놀이(예: 강강수월래) 등을 제안한다.

3. 여성대회를 위해 남측 여성단체들은 공동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4 여성대회 개최를 위해 남.북여성의 실무회담을 3월 중에 가지기를 제안한다.

사상초유 공기업≪연대파업≫ 무엇을 남겼나

정부가 민영화 반대투쟁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때마침 조폐공사의 구조조정관련 파업이 전격적으로 불법 파업으로 판결되면서 정부와 사측이 민영화를 기정화하고 ≪민영화 문제는 노조가 법적으로도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 노동계가 불법 파업으로 내몰리자 교섭사안 중 민영화 문제는 차후로 미뤄지고 노동조건 일부타협으로 협상이 마무리되고 있다. 그러나 인사경영권과 관련, 단체교섭 대상여부 논쟁은 노동운동 역사를 거쳐 계속돼 왔다. 특히 IMF이후에는 기업의 합병, 구조조정과 관련한 파업의 합법성 여부가 계속 논쟁 중이었고 26일 대법원의 조폐공사 불법파업 관결도 원심에서는 다양한 입장의 법해석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폐공 파업의 기습적인 불법판결이 이번 총파업까지 불법으로 내몰자 노동자측의 반발이 격심하다. 이들은 민영화에 대한 쟁의가 정당함을 주장하는 한편 형평성 잃은 정치적 관결에 대해 맹비난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26일 성명을 내고 ≪민영화는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정부를 규탄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27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조폐공사의 구조조정 반대쟁의를 불법파업으로 관결한 것은 현재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을 기정사실화하고 민영화 및 구조조정 반대 파업을 불법으로 몰기 위한 정치적인 관결이었다≫고 규탄하고 편파적 노동관결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동쟁의 대상의 문제는 법해석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조항은 노동쟁의를≪임금, 근로시간, 복지 · 해고 기타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해..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놓고 노조가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는가에 관한 논란은 계속돼 왔다.

정부는 기업 경영권에 관련한 부분은 노동자들의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또한 인사경영권을 놓고 노사가 맞설 경우 노동자측의 의견을 묻는 노사간의 ≪협의≫가 아니라 기업의 일방적 통보를 통한 ≪합의≫를 옹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노동계는 구조조정 및 기업 통폐합 등 인사경영권은 경영진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 조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쟁의대상에 관한 법해석의 문제가 법학자들과 노동학자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음에도 사법부가 이번 조폐공사 파업을 불법으로 관결한 것은 정치적으로 형평을 벗어났고, 이를 편파적으로 보도해 현재의 노조파업까지 불법으로 재단한 언론의 태도는 노동계에서 ≪음모≫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다.

한편 여야 정치권은 공기업 민영화를 정부소관 정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이지만 민영화 여부가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되자 이 논의를 차기 정권으로 미뤄두려는 제스추어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치권이 계속 민영화 문제를 미루고 노동탄압적 구조조정을 강행할 경우 노동 · 시민단체와 연대해 6월 지자체 선거와 대선에서 정치투쟁을 전개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민영화 문제가 노동자들의 고용여부 및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일뿐 아니라 공적영역에서 보장해 줄 기본적인 서민 삶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문제임에도 민영화에 대한 논의는 차후 노사간 논의라는 협상안만 남기고 한걸음도 진전하지 못한 채 노동계의 고용관계나 일부 임금협상만으로 그친 것은 노동계 내부적으로도 아쉬움을 남긴다.

또한 27일 오전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과 청와대에서도 ≪민영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정책을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협상을 위해 민영화 문제를 일방적인 정부 정책으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민영화의 문제를 시민의 삶의 문제로 더욱 알릴 과제가 남아있다. 민영화를 공기업의 경쟁력 상승으로 보는 정부와 언론, 대다수 시민들에게 영국 · 일본의 사례가 세계적 추세일 수는 있으나 세계적 대안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인식시키고 국민적인 논의를 모아야 할 것이다.

홍미진 기자
시민의 신문 2002/02/27

미상공회의소 점거자 석방 촉구

주한미국상공회의소농성관련 구속자 석방대책위원회는 27일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아래 사진≫을 열고, 미상공회의소 점거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황교안)가 이들에게 폭력행사 등의 혐의를 씌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하며, 서울지검 공안2부가 상공회의소 점거자들이 미 상공회의소 직원 납치기도를 했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던 것에 대해 진지한 사과를 촉구했다.

공안2부는 지난 21일 부시 미대통령 방한을 반대하며 미 상공회의소를 점거했던 자들이 상공회의소장 테미 오버비를 납치하려 했었고, 상공회의소 직원 12명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인질로 삼으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취재기자들과 미 상공회의소 관계자들도 감금, 납치 기도 등은 없었다는 사실을 증언했고, 언론은 이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알렸던 공안2부의 사과를 촉구하며, 서울지검 공안2부가 당시 점거자들에게≪폭력사용≫ 등의 혐의를 씌운 것에 대해 점거자들의 폭력행사로 부상당한 자들의 명단과, 부상정도, 경위 등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책위는 이어 공안2부가≪미 상공회의소 점거자들이 외교상 불리한 여건을 조성한 점등을 고려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미국에 대한 사대주의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공안2부의 황교안 부장검사와, 지휘를 맡고 있는 이효원검사를 만나 공정한 수사 촉구와, 감금 납치 등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대표자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공대위는 구속자들 석방을 위해 공동변호인단을 선임한 상태이며, 사회 저명인사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 1천명 탄원서명, 일반국민 10만명 탄원서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매일 낮 12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건물 앞에서 구속자 석방을 위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대위는 또 납치, 감금 등의 혐의를 유포했던 공안2부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 등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세옥 기자
시민의 신문 2002/02/27

테러방지법 제정 안 된다

여야가 인권침해 우려가 큰 테러방지법을 다음달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한다. 정부는 9 · 11 테러 이후 확산된 테러 위협에 적극 대처하고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인권운동단체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협 등에서도 테러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도 테러 예방과 처벌이 가능하다며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검찰 · 경찰 · 군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이들에게 테러 관련 수사권을 주기로 해 국정원의 권한이 크게 확대될 것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한나라당에서는 대테러센터 직원의 사법경찰권을 테러사범 수사로 구체화하고, 테러사건 수사를 위해 검사를 책임자로 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수사권 남용을 방지한다며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본질적으로 크게 다를 바 없다. 무엇보다 테러에 대한 개념이 지극히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법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커 인권유린이 걱정된다. 또 국방부 밑에 테러진압 특수부대를 설치하고 국정원장이 이 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 병력이 국가중요시설 보호 명목으로 민간인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위헌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인권 침해 소지가 커 시민사회의 반대가 극심한 테러방지법을 정부가 왜 제정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월드컵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한다는 명분을 들고 있으나 현행 법으로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오히려 국정원이 테러방지를 빌미로 그동안 축소돼온 수사권을 확대하려고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보기관의 권력남용과 인권탄압을 막기 위해 그동안 우리사회가 얼마나 고통을 겪어 왔는가. 국회는 이런 점을 심각히 고려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

한겨레신문 2002/02/27

현 시기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에 대하여 (3)

대표집필자 최성원 / 2001년 11월 6일

순 서

1. 두 개의 전선 이외에 다른 전선은 없다
2. 그렇다면 지역통일전선은 무엇인가?
3. 전략적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투쟁에서 전술적 공동전선이 가지는 의의
4. 민족민주운동의 미숙성과 그로 인한 전술적 패배
5. 전술적 실패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6. 민족해방혁명의 승리국면에 대하여
7. 민족해방혁명과 조선혁명의 전국적 관점
8. 강고한 민족민주전선을 구축하는 전략문제에 대하여
9.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중요성에 대하여

2)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임무

남측에서 6.15 공동선언의 강령적 기치 아래 각계각층 통일지향세력을 결집시키는 지역통일전선은 누가 주도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은 민족민주전선에 관한 이론을 해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민족통일전선을 누가 영도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통일정세는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민족통일전선의 형성과 구축은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6.15 공동선언을 강령적 기치로 하는 민족통일전선이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에 의하여 주도되는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통일전선이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통일전선이므로, 남측에서 6.15 공동선언의 강령적 기치 아래 각계각층 통일지향세력을 결집시키는 지역통일전선도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이 주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이 남측의 지역통일전선을 영도한다는 말은 민족통일전선을 통하여, 민족통일전선 안에서 영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남북(북남)관계는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의 대치상태로 여전히 묶여있으므로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이 남측 지역에 직접 진출하여 남측의 각계각층 통일지향세력을 민족통일전선으로 결집시키는 조직 · 정치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은 남북(북남)노동자와 남북(북남)농민을 통일연대기구로 결집시키는 사업을 주동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으며, 금강산과 평양에서 남과 북(북과 남), 해외의 통일지향세력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 정치회합을 주동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이 추진하고 있는 민족통일전선의 전략적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민족통일전선의 전략적 사업만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임무를 수행하는 전술적 사업도 있습니다.

이 지역적 임무는 남측에서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문제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통일지향세력과 반통일세력의 투쟁(이른바 ≪남남갈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적 임무를 전술적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통일전선이 수행해야 할 전략적 사업은 남측의 반통일세력과의 투쟁이 아니라 최대의 반통일세력인 미 제국주의세력과의 투쟁에 집중되는 조직 · 정치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이 지금 남측에서 통일지향세력과 반통일세력 사이에서 전개되고 있는 투쟁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면서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임무를 수행하는 전술적 사업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임무를 수행하는 전술적 사업은 누가 책임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책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6.15 공동선언을 강령적 기치로 하는 민족통일전선의 전략적 사업을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이 주도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임무를 수행하는 전술적 사업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는 비주체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민족통일전선을 남측에서 공고하게 형성하는 지역적 임무에 열성적으로 복무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민족통일전선을 확대하고 공고화하는 전략적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됩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당면임무를 생각하면서 지역통일전선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고, 그 지역통일전선을 주동적으로 이끌어 가는 책임적 주체가 우리 민족민주운동역량이라고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지역통일전선은 민족통일전선 안에 포괄되어 있는 전술단위이므로 전략적 통일전선으로서의 독자적인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며, 지역통일전선이 민족민주전선의 임무를 대행할 수 없다는 것도 명백합니다.

김철수 동지는 우리들이 ≪한국변혁의 전략적인 두 개 전선을 설정한 것은 명백한 오류≫고 비판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들은 남측 지역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인 전선을 두 개의 전선으로 설정한 적이 없습니다. 거듭 밝히지만, 지역통일전선은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술단위의 전선이지, 남측 지역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전선이 아닙니다.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임무와 남측 지역혁명의 임무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김철수 동지는 민족통일전선이 전민족적인 차원에서 형성되는 통일전선이라는 사실만 해설하였던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에 충실한 나머지, 그 민족통일전선을 남측에서 공고하게 형성하는 지역적 임무를 위하여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주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당면문제에 대해서는 좀 둔감한 것 같습니다.

3. 전략적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투쟁에서 전술적 공동전선이 가지는 의의

6.15 공동선언의 채택이라는 통일정세의 질적 변화는 우리 민족민주운동에게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민족민주운동에게 있어서 남측의 친미예속정권은 변함없이 청산의 대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의 채택은 친미예속정권도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전술적 공동전선에 견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들의 착오를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두 개의 전선≫이라는 논문에서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이 남측의 친미예속정권과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는데, 이것은 중대한 착오였습니다. 그 논문에서 우리들은 전술적 공동전선과 전략적 통일전선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동하였습니다. 북측의 조국통일역량과 남측의 친미예속정권 사이에서는 전략적 통일전선(민족통일전선)이 아니라 전술적 공동전선이 형성된다고 해야 옳습니다. 이 점을 바로 잡습니다.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은 친미예속정권을 민족민주전선의 청산대상으로 규정하는 것과 더불어 그 정권이 민족통일전선의 견인대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인정하였습니다. 친미예속정권을 청산대상으로 보고 투쟁하고 있는 우리 민족민주운동에게 만일 그 동일한 대상이 통일전선으로 견인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친미예속정권을 연방제 통일이 실현되기까지 함께 가야할 전략적 동반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됩니다. 이 경우에 친미예속정권을 청산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민족민주전선의 전략과 친미예속정권까지도 전략적 동반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민족통일전선의 전략은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이 성립되었던 당시의 혁명정세와 통일정세는, 아무도 친미예속정권이 민족통일전선의 전략적 동반대상이 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상상할 수 없었던 첨예한 대결정세였으므로, 그 기성이론이 인정했던 가능성, 다시 말하여 친미예속정권까지도 통일전선의 전략적 동반대상으로 될 가능성이란, 현실적 가능성이 아니라 순전히 이론적 가능성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들은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이 오늘의 변화 · 발전된 통일정세를 수 십 년 전에 미리 예견할 수 없었다는 시대적 한계를 인정합니다.

요즈음 우리들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활동가들은, 친미예속정권이 6.15 공동선언을 채택한 일방이므로 그 선언을 파기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그 정권을 전략적 통일전선의 견인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고, 만일 그 선언을 파기할 때는 청산대상으로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리도 또한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민족통일전선에 전략적 동반대상으로서 포함되는 대상은, 이론적으로 볼 때 절대로 6.15 공동선언을 파기할 수 없는 대상이어야 합니다. 민족통일전선의 전략적 동반대상은 반드시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전략적 동반대상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대상이 그 선언을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말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

이러한 논리적 모순이 해결된, 그리하여 오늘의 통일정세에 맞는 민족통일전선의 전략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전술적 공동전선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통일전선의 기성이론을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친미예속정권을 청산대상이냐 아니면 전략적 통일전선의 대상이냐 하는 과거의 관점 대신에, 청산대상이냐 아니면 전술적 공동전선의 대상이냐 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술적 공동전선이라는 개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전술적 공동전선은 상대를 일시적으로 이용하자는 목적에서 형성되는 전술적인 전선이 아닙니다. 전술적 공동전선이라는 개념에서 강조점은 ≪전술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공동전선≫이라는 말에 찍혀 있습니다. ≪통일전선≫이라는 개념에는 상이한 존재들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통일되어 끝까지 함께 투쟁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지만, ≪공동전선≫이라는 개념에는 상이한 존재들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통일되지는 않으면서 공동의 목적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술적 공동전선은 청산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략적 동반대상도 아닌 새로운 대상과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손을 잡는 공동전선입니다. 공동의 목적을 추구한다는 말은, 재론의 여지가 없이 6.15 공동선언을 이행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공동전선은 6.15 공동선언을 파기하지 않는다는 최소의 필요조건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손을 잡을 수 있는 공동전선입니다. 따라서 6.15 공동선언을 파기하는 경우 전술적 공동전선도 파탄되게 됩니다. 친미예속정권이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더라도 민족통일전선의 전략적 동반대상으로 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문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전술적 공동전선은 우리 민족민주운동과 친미예속정권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북측의 조국통일역량과 친미예속정권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친미예속정권은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에게는 전술적 공동전선에 견인하는 대상으로 되고, 우리 민족민주운동에게는 전술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됩니다. 전술적 공조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둘째는 북측의 조국통일역량과 친미예속정권 사이에서 전술적 공동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북측의 조국통일역량과 남측, 해외의 통일지향세력들 사이에서 전략적 통일전선(민족통일전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6.15 공동선언 채택 이후에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문제의식입니다.

그런데 북측의 조국통일역량과 남측 정권 사이에서 전술적 공동전선이 형성되고 북측의 조국통일역량과 남측의 각계각층 통일지향세력들 사이에서 민족통일전선이 형성됨으로써 6.15 공동선언을 실현해 가던 말던 상관없이, 만일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남측 정권을 청산하려는 정권퇴진투쟁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이 남측 정권과 전술적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목적은, 정치적 파산위기에로 밀려가고 있는 남측 정권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러한 것이 아니라,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고, 민족 전체의 조국통일역량을 그 전선으로 결집시켜 결국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자는 데 있습니다.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이 6.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전민족적인 조국통일역량을 전략적 통일전선으로 묶어세우고 친미예속정권까지 전술적 공동전선으로 견인하면서 전개하고 있는 역사적 대사변을 민족통일전선의 형성이라고 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겠습니까. 북측은 친미예속정권을 타도대상이라고 변함없이 믿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그 정권을 상대로 일시적인 기만전술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6.15 공동선언에 의하여 형성되는 전술적 공동전선은, 북측이 친미예속정권을 타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므로 타도투쟁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정치협상을 벌이는 척 하는 기만전술을 펴는 것이 아니라, 친미예속정권에게서 최소한의 가능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공동전선으로 견인하는 것입니다.

적대관계에 있던 존재를 공동전선의 견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는 그 존재가 지니고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입니다. 만일 그 가능성마저 없다면 전술적 공동전선은 원천적으로 형성될 수 없으며, 적대관계만 남게 되고, 타도와 청산을 전제로 하는 일시적 협상의 기만전술을 동원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두 개의 전선≫이라는 논문에서 그 최소한의 가능성을 ≪화해 · 협력성≫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통일전선사업은 존재가 아니라 속성을 중시합니다. 이것은 김철수 동지가 비판한 것처럼 ≪관념적 조작의 극치≫가 아니라 통일전선사업의 기본원리입니다. 이를테면, 자본가 계급은 우리 민족민주운동과 양립할 수 없는 적대세력, 청산대상이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지만, 남측의 통일전선인 민족민주전선에 민족자본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는 자본가 계급의 성원들 가운데는 반제민족적 속성이 있는 개별적 존재(통일전선의 기성이론에서 지적했던 ≪양심적인 민족자본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양심적인 민족자본가를 혁명의 편에 전취한다≫는 통일전선 기성이론의 논리는, 자본가라는 계급적 존재가 아니라 자본가가 지닐 수 있는 반제민족적 속성을 중시하고 그것을 근거로 통일전선을 형성한다는 말입니다.

김대중 정권에게서 친미예속성만을 본다면 그 정권은 전면적으로 부정되어야 하지만, 그 존재가 지니고 있는 다른 속성은 전술적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근거로 될 수 있다는 것은 6.15 공동선언이 우리 민족민주운동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김철수 동지는 ≪한국변혁운동은 결코 사대매국정권과 손잡을 수 없다≫고 하면서 마치 우리들이 민족민주운동과 김대중 정권이 통일전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처럼 전제하고 논리를 전개하였는데, 우리들은 민족민주운동과 친미예속정권이 통일전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친미예속정권과 ≪손을 잡는다≫는 모호한 말로 표현할 게 아니라 통일전선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쟁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위에서 지적했던 대로, 화해 · 협력성을 지닌 친미예속정권과 전술적 공동전선을 하는 쪽은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아니라 북측의 조국통일역량입니다.

만일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화해 · 협력성을 지닌 친미예속정권과 전략적 통일전선을 하게 되면 그러한 정권을 전략적 동반대상으로 인정하고 언제까지나 함께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지역혁명의 전략은 파탄되고 맙니다. 친미예속정권을 전략적 통일전선 안에 포괄되는 동반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발전전망 자체를 부정하는 우경기회주의이므로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내일 계속)

하나 민족도 나

조국통일3대헌장

폭넓은 정치협상, 7.4공동성명 (2)

김일성주석과 민족대단결

국제정세가 완화추세를 보이고 남조선에서 통일분위기가 드높아지고 있는 안팎의 정세변화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1971년 4월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 회의에서 현국제정세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촉진시킬 데 대하여 를 토의하고 8개항목의 구국방안을 제기하신데 이어 8월 6일에는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둠 시하누크 친왕의 평양방문 환영연설에서 북과 남의 폭넓은 협상방침을 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내놓은 8개 항목의 통일방안을 접수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것은 딴 문제로 치고라도 그들이 참말로 나라의 통일을 바란다면 무엇 때문에 북과 남이 접촉하고 협상하는 것을 두려워하겠는가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 **우리는 남조선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과 아무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습니다.** （ **김일성**저작집 제26권, 232페지)

남조선의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과 협상을 진행할 데 대한 이 방안은 시대의 요청에 화답하여 주동적으로 취한 대담하고 폭넓은 대화방침이었다.

지금까지 공화국 정부가 북남통일협상제의에서 남조선의 집권당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그것은 력대 남조선집권당들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체질과 관련된 것이었다. 말로나 행동에서나 통일을 금기사항으로 삼는 대상들과는 협상을 제기한대야 회담탁에 나오지 않을뿐더러 설사 억지로 회담탁에 나온다고 해도 통일을 위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은 뻔한 일이었다.

그러나 국제정세의 새로운 흐름과 내부적 압력에 따라 남조선의 집권자들 자체가 평화통일 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으면 안되게 된 시점에서는 거시적 안목에서 관용과 포용의 폭을 넓히는 것이 문제해결의 첩경으로 제기되였다.

남조선 집권상층의 과거경력은 어떻든지간에 그들을 협상대상으로 선포하신 것은 민족대단결의 새로운 물꼬를 트이는 일대 전기가 아닐 수 없었다. 이렇듯 **김일성**주석께서 1971년 8월 6일 연설에서 밝히신 폭넓은 협상방침은 그분의 민족대단결 리념의 빛나는 구현으로서 전민족대단합 운동의 새로운 발단으로 되었다.

남조선이 집권상층(執權上層)을 포괄하는 폭넓은 협상방안은 또한 **김일성**주석의 자주통일의지가 구현된 자주적 협상방침이었다.

미국이 대국들과의 대결체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표방해나선 점으로 보나 닉슨주의 의 한 반도문제의 한국화 선에서 보나 미국이 북과 남의 당사자들끼리 마주앉아 통일문제를 론의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방해해나설 명분은 없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남조선 당국자들도 마음에 없는 소리이긴 하지만 스스로 통일문제를 입에 올리기 시작한 실정에서 남조선 집권상층을 포함하여 각 당, 각 파, 각계각층과 통일문제를 협의하자는 것은 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에서 떼내어 민족자결에 소속시키는 참으로 현명한 자주적 조치가 아닐 수 없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폭넓은 협상방침을 계기로 북남사이에는 당국자간 협상의 새로운 장(章)이 펼쳐지게 되었다.